



우측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안산톡톡'을 볼 수 있습니다. ※ 안산톡톡(talktalk) : 톡톡(talktalk) 튀는 이야기(talk)가 가득한 톡톡(talktalk)한 소식지!



화정천

02 김홍도축제

안산에서 펼쳐지는 전통예술의 풍류 한마당

안산은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화가, 김홍도의 고향이자 그가 어린 시절 그림을 배운 의미 있는 지역이다. 2019 김홍도축제에서 김홍도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보는 것은 물론, 작품 속 조선시대 서민들의 유유자적한 풍류를 재해석한 다채로운 콘텐츠를 경험해보자!

05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경기도민의 축제, 생생 가을 대운동회

경쟁 아닌 만남과 소통을 통한 화합과 축제의 장,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 안산 와~스타 디움 주경기장 등 안산시 전역의 41개 경기장에서 진행된다. 19일 개최식에는 인기 가수들의 화려한 공연과 불꽃·레이저 쇼가 가을 밤하늘을 밝힌다.

12-13 우리 동네에서는 어떤 축제가 열릴까?

한 눈에 보는 안산시 동(洞)네 소식

10월은 축제의 달! 동네 곳곳마다 특색 있는 축제가 풍성하게 준비되었다. 날씨 좋은 주말,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멀리 갈 필요 없이 안산에서 즐기자.

20 안산문화재단 예술아카데미

‘문화나눔’ 프로그램과 인문학 아카데미 생생특강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강좌, 활기찬 노년 생활을 위한 ‘문화나눔’ 프로그램과 시대에 따른 무대작품·클래식·국악·뮤지컬을 인문학과 연계한 아카데미 생생특강을 소개한다.



10월, 안산에서 즐기는 풍류여행 화랑유원지·안산문화광장에서 사흘간 '김홍도축제' 열려요

모든 시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김홍도축제'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화랑유원지와 안산문화광장에서 열린다.

1990년 정부로부터 '단원의 도시'로 명명된 안산시는 단원미술제 개최, 단원조각공원 조성, 단원미술관 건립 등 김홍도 예술혼 계승사업을 전개해 왔으며, 지난해부터 일반인들도 친근하게 즐길 수 있는 '김홍도축제'를 열고 있다.

'2019 안산 김홍도축제'는 김홍도 그림에 나타난 풍속과 해학을 주제로 다채롭고 차별화된 콘셉트로, 조선시대의 풍속을 그대로 재현한 서당, 주막, 벼 타작 등 즐길 거리가 풍성한 '김홍도 마을'을 재현했으며, 김홍도의 그림과 철학을 엿볼 수 있는 홍보관과 해학과 풍자가 넘치는 전통공연 등 이색적인 축제로 꾸며진다.

문화관광 융·복합형 축제와 다양한 체험부스 운영

최고 30m에 달하는 열기구 탑승체험, 실제 말들이 광덕대로를 활보하는 관광마차(5인승 3대) 탑승 체험, 디스코팡팡, 바이킹 등 각종 유원시설 프로그램이 운영돼 어른과 어린이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관광 융·복합형 축제로 진행된다. 80여 개의 체험부스와 저렴한 가격에 좋은 특산품과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흥도나눔장터, 플리마켓(온갖 중고품을 팔고 사는 만물 시장), 지역 특산품 판매장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김홍도 사생대회, 전국 안산 가요경연대회, 국악한마당 등 이색적이고 다채로운 행사도 즐길 수 있다.

김홍도 사생대회는 10월12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화랑유원지에서 열린다. 10월4일까지 사전 참가 신청을 하면 되고,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김홍도 축제 풍경 그리기 등 '나도 풍속화가'라는 주제로 열리며 유치원생에서부터 고등학생까지 참가할 수 있다.

안산 전국 가요경연대회는 10월12일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30분까지 안산문화광장 특설 무대에서 진행된다. 사전 축하공연, 본선 무대, 시상식과 가수 태진아의 특별 축하공연 무대가 마련된다.

김홍도축제, 문화관광형 가을 축제로 거듭나

'김홍도축제' 개막식 및 '2020 안산 방문의 해' 선포 퍼포먼스는 10월12일 오후 6시 화랑유원지에서 진행된다. 퍼포먼스에 이어 시립합창단 축하공연, 세계 국기 퍼레이드 등이 열리고 50여개국 주한외교사절단을 초청해 다양한 세계의상과 한복을 보여주는 패션쇼가 펼쳐진다.

안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9 올해의 관광도시'로 선정돼 국비 지원을 받아 올해의 관광도시 육성사업 컨설팅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인문자산인 김홍도를 축제 소재로 발굴해 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정통성 있는 문화관광형 가을 축제로 만들었다.

또한 다가오는 2020년을 '안산 방문의 해'로 지정, 안산을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서해안 대표 관광도시로 만들고,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스토리텔링 공모전 개최, 전문가 및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관광포럼 운영, 대부해솔길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한 스탬프투어 프로그램 추진 등 이색적인 홍보 마케팅을 운영하고 그에 걸맞은 관광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김홍도 축제가 열리는 안산문화광장은 10월12일 오전 2시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광덕로 상가(골든빌~AW컨벤션) 도로 교통이 통제 된다. 화랑유원지 행사장은 전철 4호선 초지역을 이용하면 접근이 편리하다. 한복을 입고 화랑유원지 축제에 참가한 모습을 SNS에 게재하면 소정의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가 혼잡할 수 있으니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쓰레기 되가져 가기, 불법 주·정차 금지 등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3097) / 이선희 명예기자_ iamyou70@hanmail.net

화랑유원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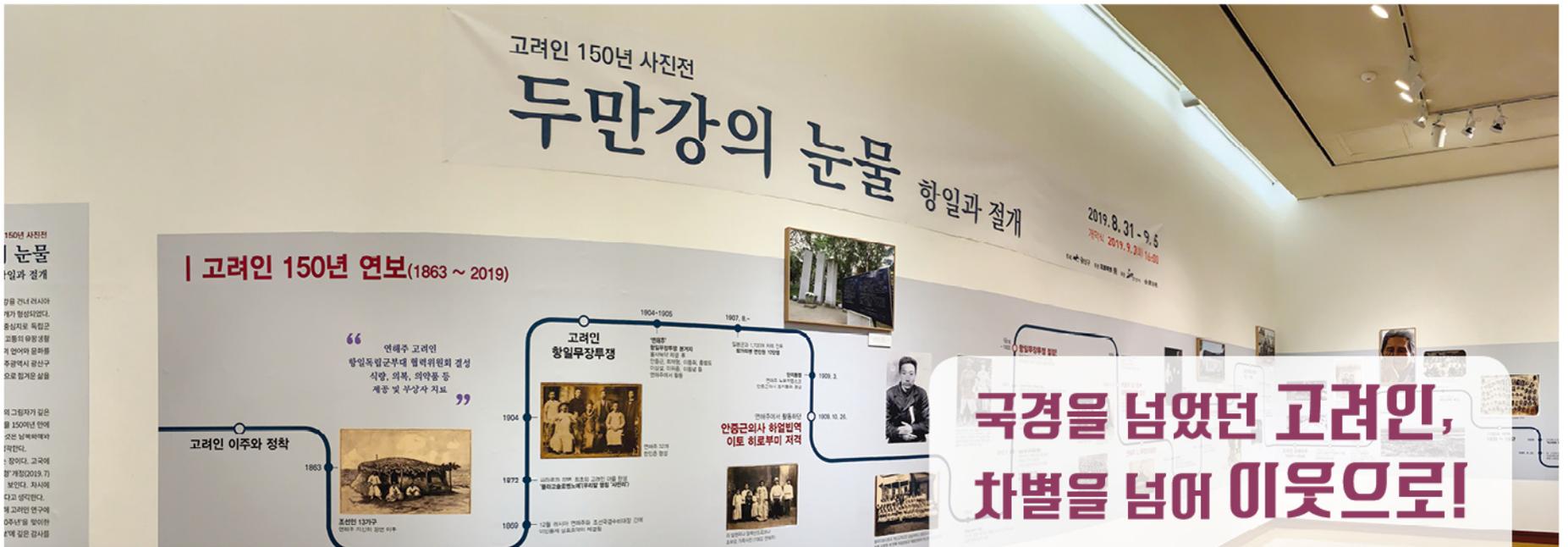
(기획프로그램) 김홍도 풍속재현, 김홍도 마당극, 김홍도 홍보관
(체험프로그램) 염전, 유리공예, 한지, 도예, 서각, 곤충, 수공예 등 50여개 체험프로그램
(공식행사) 안산시민의 날 기념식, 안산방문의해 선포식
(부대행사) 세계의상 패션쇼, 사생대회, 플리마켓, 유원시설 등

안산문화광장

(관광마차) 관광마차 탑승체험
(놀이존) 투호,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워터볼, 블럭쌓기 등 놀이시설
(체험·판매존) 한복체험, 수공예품 만들기 등 30여개 체험, 흥도장터 등
(공연존) 안산 전국 가요경연대회, 국악한마당, 풍물놀이 등



사진 설명 1. '줄 타기' 전통공연 2. 노상송사(장터에서 벌어지는 송사) 마당극 3. 문방사우(서당) 체험 4. 나귀 먹이주기 체험



66
고려인은
우리의 이웃이다

고려인은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 붕괴 후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중앙아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을 말한다. 19세기 후반 연해주 땅으로 이주해 한인마을을 형성하고 살아가던 우리 동포들이며, 연해주는 일제강점기 당시 대한광복군정부 등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거점이 되기도 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당시 고려인의 인구가 늘던 중 소비에트 연방과 일본의 국제적 문제로 척박한 지역으로 강제 이주됐고, 이 과정에서 2만5천여 명이 숨졌다는 주장도 있다.

중앙아시아의 척박한 땅을 개척하고 살아가던 고려인은 소비에트 연방 붕괴로 다시 각지로 재이주하게 되고, 2007년부터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약 50만 명으로 추정되는 고려인 동포 중 현재(출입국통계 2018.5. 기준) 국내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은 7만여 명이며 그에 포함되지 않은 자녀를 포함하면 8만 명 이상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그 중 안산에 1만6천명 이상이 거주하고 있다.

66
고려인이
직접 말하는
고려인의 삶

땃골(단원구 선부2동)에 정착해 살았다는 임이고르 씨를 만나 안산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임 씨의 설명에 따르면 "지금은 가족단위가 많지만 초창기 땃골을 찾은 고려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개별로 온 경우가 많았고 혼자 살며 고되다보니 술도 마시고 서로 싸우기도 해 자율방범대를 만들어 운영했다"며 땃골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했음을 전했다. 사실 원주민들과 고려인이 함께 살아가는데 있어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이 나기도 하고, 직장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면에서 고려인 마을에 중요한 변화의 시작은 2011년 10월, 고려인을 위한 한글 야학 '너머'가 시작하면서라고 한다. '너머'에서 고려인 동포들에게 한글 교육은 물론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자원과 산재·채불 임금 상담을 하기도 하며 고려인들의 어려움에 손길을 내밀었다.

또 임 씨는 "영주권 제도나 건강보험제도가 고려인들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이어 "한국에 들어와 살고 있는 고려인들은 외국인 취급을 받고 있는데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다시 들어온 것이다"며 "내 나라에 돌아와서 가족들과 남들처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국적이

든 영주권이든 제도의 기준이 너무 높아서 안정적으로 삶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한다. 제도적 틀에 들어가기 위해 한국어 능력, 한국역사, 한국문화 등 능력을 요구받는데 "타국에서 모국어를 접하지 못한 채 살아왔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워 하루 종일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사는 처지에 교육을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아예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임 씨는 "그래도 안산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어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안산시 평생학습관을 통해 '길거리학습관' 사업으로 땃골마을에 '카페 미스터신'을 열어 고려인 대상 학습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안산시에서 고려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땃골 지역 '고려인 문화센터'를 지난 2016년 만들기도 했다"고 한다.

이어 "9월 28일에 열리는 고려아리랑 행사에 안산 시민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고려인들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면 좋겠다며 함께 땃골을 돌고 서로 도움도 주고 같이 살아가야 좋은 지역, 좋은 도시가 되고 살기 좋은 안산이 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66
빛바랜 사진 속,
150년 고려인
역사를 만나다

8월31일부터 9월5일까지 안산문화예술회관 화랑전시관 제3전시실에서 고려인 사진전 '두만강의 눈물'이 진행됐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주최하고 안산시, 전남일보가 후원한 이번 사진전은 지난 7월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된 바 있고, 국내에서 고려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안산에서 다시 한 번 열렸다.

사진전은 150여 년의 고려인 역사를 '두만강과 항일운동', '강제이주 6천 500km', '죽음의 골짜기', '피어오른 생명의 꽃송이', '귀환과 해외동포법 재개

정' 등 시대와 주제별 4부로 구성됐고 고려인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150여 점의 그림과 사진이 전시되어 시민들을 만났다.

전시회에서 만난 한 시민은 "안산에 고려인 동포가 많이 거주한다는 말은 들어왔지만, 고려인 사진전을 통해 고려인들에게 이런 항일의 역사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며 "고려인 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문의 :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301)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개최... 안산시 교통혁명

안산 한양대~여의도 100분에서 25분으로 단축, 안산 '5도(道)6철(鐵)' 시대 한 발짝 다가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25분에 주파하는 신안산선 복선전철의 착공식이 9월9일 안산시청에서 열렸다.

국토교통부와 넥스트레인(주) 주최한 착공식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주) 관계자 등을 비롯해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단원읍), 전해철(더불어민주당·상록갑), 김철민(더불어민주당·상록을) 등 지역 국회의원, 신안산선이 통과하는 지자체장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을 시작으로 공식적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신안산선 복선전철 사업은 2024년 개통을 목표로 안산(한양대)~광명역~여의도 구간과 송산차량기지~광명 등 모두 44.7km 구간에서 추진되며, 모두 3조3천465억 원이 투입된다.

신안산선 복선전철은 지하 40m 이하 대심도(大深度)에 건설돼 지하 매설물이나 지상부에 영향 없이 최대 110km/h 속도로 운행한다.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시에는 모두 10개소(본선·지선 5개소씩)의 역사가 들어선다. 본선은 한양대, 호수, 중앙, 성포, 장하(장래) 등이며, 지선은 원시, 원곡, 초지, 선부, 달미 등이다. 역 명칭은 추후 주민 수렴을 거쳐 역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현재 한양대 ERICA캠퍼스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시간 넘게 걸리던 이동시간은 신안산

선 급행열차를 이용하면 25분으로 크게 단축된다. 서해선 원시역에서 여의도까지 1시간9분이던 이동시간도 36분으로 줄어드는 등 기존보다 50~75% 이상 감축돼 서울 도심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다.

특히, 신안산선 개통으로 향후 조성될 예정인 221만㎡ 규모의 장상지구에는 지하철역과 광장이 들어서 역세권 개발도 이뤄져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안산선 개통 외에도 곧 개통 예정인 수인선(수원~인천), 향후 추진되는 인천발KTX의 초지역 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등이 추진되면 안산시는 '5도(道)6철(鐵)' 시대를 맞게 된다. 현재 안산에는 전철 4호선과 서해안선(소사~원시)이 운행 중이다.

한편 착공식은 풍물단 길놀이 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를 시작으로 사업추진 경과 설명회, 내외빈 축사·기념사, 착공기념 세리머니 등 순으로 이뤄졌다. 신안산선 VR체험, 푸드트럭 등 착공식에 참석한 시민들을 위한 부대시설도 마련돼 성황리에 진행됐다.

안산시 관계자는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안산뿐 아니라, 시흥, 광명 등 경기서남부권 주민들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신안산선이 목표로 2024년에 개통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사업시행자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971)

다운 상품권 조기 완판, 추가 100억 발행

3만7천700개 가맹점 경제공동체 형성...골목경제 목마름 해소



안산사랑상품권 '다운'이 발행 5개월여 만에 일반발행 80억 원이 모두 팔려 추가로 100억 원이 발행되었다.

지역화폐 발행은 대형 할인마트 증가 및 젊은 층의 온라인 구매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한정된 지역 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해 위축된 골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책이다.

올 4월1일부터 80억 원 규모로 발행된 다운 상품권은 5개월여 만에 완판 됐으며, 안산시는 10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해 관내 농협 각 지점에 배포했다. 시민들은 관내 농협에서 다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아울러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발행한 다운을 더욱 활성화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류식 가맹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지류식 다운 가맹점은 현재 1만3천900곳, 카드식은 3만7천700곳에 달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이뤄낸 성과다.

다운 발행으로 눈에 띄는 경제적 파급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다운 발행 이후 안산시는 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300억 원의 다운 발행액이 골목경제에 활력을 내도록 했다. 하루 평균 3억 원어치 판매로 다운이 조기 정착을 넘어 지역화폐로 안착했다는 평도 받는다.

고잔동의 한 가맹점 업주는 "최근 다운 상품권을 가게로 가져 오는 시민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추세"라며 "사용자와 소상공인 모두에게 유리한 다운 사용자가 많이 늘면 가게에 많은 보탬이 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안산시 관계자는 "어려운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지역경제 목마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시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다운을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 상생경제과(031-481-3591)

‘생생 가을 대운동회’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10월 18~21일 진행 안산 와~스타디움서 19일 개회식 열려...인기 가수의 신나는 무대 · 화려한 볼거리 ‘풍성’

1천300만 경기도민의 축제,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도생활체전)이 안산시에서 개최된다. 이번 도생활체전은 경쟁이 아닌 함께 어우러지는 열린 축제로 진행된다.

10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의 대장정에는 경기도 31개 시·군 소속 선수단 2만여 명이 참여하며, 24개 종목(정식 20·시범 4)에서 기량을 뽐낸다. 안산시는 14개 시와 함께 1부에 소속돼 실력을 겨루며, 나머지 16개 시·군은 2부로 나뉘어 진행된다.

안산시는 지난해 양평군에서 열린 제29회 도생활체전에서 1부 경기력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시는 볼링·국악기공·육상 3개 종목에서 종합우승을, 축구·배구·자전거 3개 종목에서 준우승을 거뒀다. 전년도보다 성적·생활체육회 인프라 등이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성취상 부문에서는 3위를 차지했으며, 우수한 퍼어플레이 정신으로 모범상을 받았다. 흥에서 치러지는 올해 대회에서 안산시는 이점을 살려 경기력 부문 우승을 노린다.

도생활체전 개회식은 10월19일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열린다. 개회식 무대는 바다의 꿈을 품은 안산을 상징화한 미래지향적 배(Ship)를 모티브로 꾸며진다. ▲동호인들과 함께·건강하게·어우러지는 Friend-ship ▲세대간 화합과 대통합을 실현하는 경기도 안산의 Leader-ship ▲1천300만 경기도민의 생활체육 Champion-ship 등 3개의 의미가 담겼다.

개회식에는 2만여 명 이상의 관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사장을 찾는 관객을 위해 공식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5시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사전행사가 마련됐다. 이번 도생활



안산 와~스타디움에서 개최된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체전의 콘셉트는 ‘생생 가을 대운동회’로 치러지며, 이에 걸맞게 관객을 맞는 사전행사는 박 터트리기 퍼포먼스 등 운동회 분위기 속에 진행된다.

공식행사에서는 안산의 과거·현재·미래와 생활체육을 잇는 스토리라인이 있는 주제공연이 펼쳐지며, 화려한 불꽃과 레이저 등 멀티미디어 쇼가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다. 축하공연에는 그룹 러블리즈와 틴탑(TEEN TOP) 등 인기 아이돌이 참여하며, 발라드 뮤지션 이상우와 90년대 히트곡 메이커 트로트 가수 성진우 등 다양한 가수가 신나는 공연을 선보인다.

개회식에 앞서 오후 1시부터는 와~스타디움 중앙광장 주변에서는 바이크, 클라이밍 등 스포츠체험과 유리·종이 등 공예체험, 놀이체험 등 다양한 체험 부스와 푸드트럭 등 먹거리 부스 등의 부대행사가 운영된다. 또 사물놀이, 인디밴드,

비보이 등 다양한 볼거리도 선보여진다.

폐회식은 10월21일 안산의 대표적인 문화체육시설 올림픽기념관에서 열린다. 오후 4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진행되며, 선수들의 환희와 감동의 순간을 담은 영상이 펼쳐지며, 참가 선수들의 현장 인터뷰, 폐식선언 등의 이어 차기 개최지인 고양시로 대회기를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막을 내린다. 안산시는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전담부서 운영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도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한 공동체 화합과 축제의 장” 등 목표를 세워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대회 참가를 위해 안산시를 방문하는 타지역 시민들에게 긍정적인 남길 수 있도록 식당과 숙박업소 점검 등도 꼼꼼히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3)

오늘날까지도 전해지는 최용신 선생의 꿈과 희망

최용신 탄생 110주년 기념 ‘당신 곁에 최용신’ 슬로건 내건 제7회 상록수문화제 10월26일 개최



상록수문화제 기념음악회



‘퍼레이드 샘플로’

올해는 일제에 항거하며 농촌계몽운동을 이끌었던 최용신(1909~1935) 선생의 탄생 110주년을 맞는 해다. 안산시는 이를 기념해 ‘당신 곁에 최용신’을 슬로건으로 한 ‘제7회 상록수문화제’를 개최한다. 시는 오늘날까지도 최용신 선생의 꿈과 희망이 우리와 함께 살아있음을 느끼고 경험해볼 수 있도록 마련한다.

축제는 10월26일 최용신기념관과 샘골교회가 있는 상록수공원 일대에서 오후 1시부터 진행된다. 행사장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휴식과 놀이를 즐길 수 있는 텐트놀이존, 에어 배드 씬터, 마당캠버스 등 다양한 놀이프로그램이 마련돼 방문객을 맞는다. 인근에는 최용신 선생을 주제로 한 교육프로

그램의 결과물이 ‘평범한 우리들의 걸작展’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진행하며, 제1~6회 상록수문화제 참여 시민 사진들의 사진전도 마련된다. 안산시 박물관·미술관 교육체험박물관과 경기도 무형문화재 옥로주·옥장 체험 등 방문객을 찾은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됐다.

문화제를 맞아 열리는 기념음악회는 저녁 시간인 오후 6시30분부터 상록수공원 인근 공영주차장(상록구 본오동 878-7)에서 시작된다. 샘골교회 어린이합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그루브어스의 신나는 브라스밴드 공연, 환상의 하모니를 선보이는 아카펠라 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의 절정은 오

후 8시 선보여지는 뮤지컬 공연이다. 최용신 선생을 주제로 한 창작뮤지컬 ‘샘골강습소 최선생’을 연극팀 ‘연극과 마을’이 선보인다.

기념음악회가 열리는 공영주차장은 10월25일 오후 1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통제되며, 축제가 진행되는 최용신기념관 일대 샘골로 430여m 구간은 10월2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용신 탄생 110주년을 맞아 열리는 상록수문화제는 공연, 놀이, 체험, 전시가 한 곳에서 어우러져 큰 배움터이자 놀이터로 시민을 맞을 것”이라며 “안전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 안산시 문화예술과(031-481-3040)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미세먼지 걱정 없는 보행환경 만든다

전국 최초 이면도로 소형 청소차 운영...가로청소 방식 일대 변화 예고

안산시는 좁은 도로와 보행로 주변에서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소형 청소차를 도입했다.

9월 초부터 도입된 소형 청소차는 모두 10대로 상록구 5대, 단원구 5대가 배치돼 운영된다. 보도(歩道)에서 운영 가능한 소형 청소차는 앞으로 이면도로와 보행로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좌식 탑승형 청소차를 가로청소 분야에 도입하는 것은 전국 최초로, 기존 손수레와 빗자루 위주의 가로청소 방식에서 큰 변화도 예상된다.

소형 청소차를 운행해 본 환경미화원은 "가로청소를 위해 매일 10km 이상을 걷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작업이 많

다"며 "소형 청소차 활용으로 환경미화원의 근무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안산시 관계자는 "소형 청소차 도입으로 그동안 미세먼지 청소가 어려웠던 좁은 길이나 보도 위까지 청소가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시민에게 건강한 보행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형 청소차 도입을 축하하며 시는 9월9일 원곡동 다문화거리에서 주민, 환경미화원, 관계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석맞이 안산 청소의 날' 행사를 열고 소형 청소차 도입기념 시승식도 함께 진행했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2259)



시범운영중인 소형청소차

10월 26일 제4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 개최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기념, 늦가을에 즐기는 *웰니스(wellness)



바다향기 수목원 코스(6코스)

경기도 유일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기념하고, 천혜의 아름다운 풍경과 각종 체험거리가 풍성한 대부도를 알리기 위한 '제4회 전국 대부해솔길 걷기축제'가 10월26일 개최된다.

대부해솔길은 서해안 대부도의 해안선을 따라 자연경관을 바라보면서 바다 내음을 맡으며 섬 한 바퀴를 둘러 볼 수 있는 전체 7개 코스 74km의 생태 트레킹 산책길이다.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 '대부해솔길 걷기축제'는 10월26일 대부도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출발해 아름다운 해안 풍경을 자랑하는 6코스와 천일염을 생산하며 안산시 유일의 동주염전이 있는 5코스 구간 등 모두 10km를 걸으며 약 3시간동안 진행된다.

안산시가 주최하고 (주)하나투어와 (사)안산시관광협의회 주관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동춘서커스, 색소폰 연주와 라인댄스 등 알찬 무대와 냉장고, 가전제품, 리조트 숙박권, 가족 사진 촬영권, 자전거 등 풍성한 경품도 준비돼 있다.

'2019 올해의 관광도시'를 상징하는 2천19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나, 만 16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참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참가비 중 5천원을 안산사랑상품권 '다온'으로 환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폭우 등 악천후가 아닐 경우 비가 내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가 희망자는 10월13일까지 안산시관광협의회 홈페이지(www.ansantou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단체신청 등 궁금한 사항은 대부도관광안내소(1899-1720)로 문의하면 된다.

*웰니스(wellness) :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 문의 : 안산시 관광과(031-481-2355)

한눈에 보는 다문화마을특구 안내지도 제작

14개국 55개소의 맛집과 외국인 지원시설 표기

안산시는 대한민국 속 작은 세계인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관광안내 지도 5천부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9월16일 밝혔다.

휴대하기 좋은 크기로 제작된 지도는 특구 관광기점인 4호선 안산역을 시작으로 중심거리인 다문화음식거리까지 쉽게 찾아가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돼 있다. 특히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맛 볼 수 있도록 시가 추천하는 14개국 55개소의 주요 음식점을 메뉴와 함께 소개하고 있다.

아울러 외국인 입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각종 상담센터와 지원시설, 중국은행 등 외환승금센터 위치정보 등도 알기 쉽게 표기했다. 책자는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외국인주민

지원본부, 안산역·대부도 관광안내소 및 원곡동·신길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구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는 현장에서 일하는 안산시 관광객 안내사의 의견을 모아 관광객 입장에서 제작했다"며 "관광객 편의 증진으로 특구 관광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원곡동에 위치한 다문화마을특구는 전체 주민 중 87%가 외국인 주민이며, 세계 여러 나라의 음식점과 상가들이 있어 주말이면 수많은 외국인들과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 문의 : 안산시 외국인주민정책과(031-481-3904)





소식通

차량등록번호 체계 변경에 따른
차량번호인식카메라 업데이트 필요

▶ 현행(페인트식)

52가 3108

▶ 신규 번호판(페인트식 또는 필름식)

123가 4568

9월 1일부터 비사업용 승용차(대여사업용 포함) 차량 등록번호 체계가 현행 7자리에서 8자리로 변경되어 시행됐다.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2천300만대를 넘어섬에 따라 현행 7자리 번호체계로는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가 돼 9월부터 번호체계를 8자리로 개편하게 됐으며, 이를 통해 총 2억 1천만개의 등록번호가 추가로 확보돼 향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시설물 전수조사·홍보, 업데이트 실적점검 등을 진행했으며 차량번호인식카메라의 업데이트가 조속히 완료돼 8자리 신규 번호판을 부착할 차량이 원활히 출입할 수 있도록 아파트 관리사무소, 병원 및 쇼핑몰 운영업체 등 시설관리 주체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업데이트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인력배치 및 개폐기 수동 조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차량출입 및 주차요금 정산 등에 따른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물별로 자체 관리 방안을 사전 강구하는 등 주민불편 최소화방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37)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하세요

안산시는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주거비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 중인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의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올 1월 처음 시행돼 6월까지 관내 신혼부부 317가구에 3억 원을 지원했으며 지원종료 이후 신청문의가 잇따르면서 9월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부부 가운데 신청일 기준 혼인기간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가구다.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25%에 대해 연 1회 100만원, 자녀가 있는 가구는 우대지원으로 1자녀 1.35% 120만원, 2자녀 이상 1.5% 130만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할 수 있다.

◇ 문의 :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안산 명소로 자리 할래요

시니어 '카페 화랑' 화랑유원지에 문 열어

안산시민의 휴식처 화랑유원지에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 화랑'이 문을 열었다.

경기도미술관 남서쪽 관리소 건물 1층에 자리한 카페 화랑은 안산시 시니어클럽 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의 교육장으로 쓰이던 곳이다. 건물 벽 3면을 통 유리로 바꿔 화랑유원지가 한 눈에 들어오는 카페 화랑은 숲의 운치를 앉아서 누릴 수 있다.

주민 조은숙(59·원곡동) 씨는 친구들과 화랑유원지에 왔다가 홀린 듯 새로 생긴 카페 화랑을 찾았다. "카페 전경이 한 폭의 그림이예요. 외국에 나가있는 딸아이에게 사진 찍어 보냈더니 멋있다고 한국에 들어오면 와보겠다고 하네요. 커피 맛도 신선한데요. 좋은 원두를 쓰시나 봐요. 화랑유원지 올 때마다 들르게 될 것 같아요"라고 했다.

카페 화랑은 91㎡ 면적에 원목 탁자 10개, 청회색 가죽의자, 10여명이 단체 모임을 할 수 있는 미팅 룸까지 갖췄다. 카페 3면에서 들어오는 숲의 운치는 비 오는 날엔 가슴까지 젖어들게 한다.

카페 화랑은 같은 건물 2층을 사무실로 사용 중인 안산시 시니어클럽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2019년 경기도 초기투자비 지원사업 공모'에서 '공감&카페' 사업에 선정돼 문을 열게 됐다.

경기도와 안산시로부터 6천500만 원씩 지원받아 안산도 시공사 소속 화랑유원지 관리소 건물 1층 일부를 무상 임차해 카페로 꾸몄다. 지역의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바리스타 교육과 실습을 거쳐 하루 3~4시간씩 교대근무하며 운영한다. 판매 품목도 아메리카노·카페라떼·카푸치노·캐



러멜마키아토·대추·유자·모과 차와 생과일주스·에이드·스무디 음료, 빙수, 마카롱·떡·도넛 등 다양하다. 박갑임(63) 바리스타는 "카페 화랑에서 일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며, 이곳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단골이 되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했다.

어르신 일자리 전담기관 안산시니어클럽 이흥배 관장은 "카페 화랑이 문을 열어 어르신 12명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카페 화랑 2호점 3호점이 계속 생겨 어르신들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가 확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카페 화랑은 9월 26일 오후 3시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오픈식을 개최한다.

◇ 문의 : 카페 화랑(031-481-8182)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안산시자살예방센터, 생명존중 문화 위한 '생명사랑 음악회' 개최

세계 유일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 초청 공연



공연 중인 '한빛예술단' 오케스트라

OECD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10만 명 당 25.6명(2016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6명, 연간 1만3092명이 생을 마감하고 있다. 2018년 리투아니아가 OECD에 새로 가입하면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지만, 그 전까지 대한민국은 13년간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매년 9월10일은 '세계 자살예방의 날'이다.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과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날로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에 의해 2003년부터 제정, 시행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11년 제정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9월10일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기

념하고 있다.

안산시에서도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하고 자살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2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에서 생명사랑 음악회를 개최했다. '반딧불이-당신의 빛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열린 음악회는 세계 유일의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한빛예술단'을 초청해 희망과 생명존중 등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한빛예술단'은 음악감독이자 지휘자인 김종훈(시각장애 1급) 씨를 비롯해 모든 연주자들이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내뿐만 아니라 러시아, 독일, 브라질 등 해외 초청 공연에 참여하고, 2018년 평창 패럴림픽 개·폐막식 축하공연 무대에 오르기도 한 실력을 인정받는 예술단이다.

장애를 극복한 삶과 연주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뿐 아니라 생명존중, 배려의 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한빛예술단의 브라스, 보컬, 오케스트라 공연이 이어지며 생명사랑 음악회에 찾아준 시민들에게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 문의 : 안산시자살예방센터(031-418-0123)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INTERVIEW

전설의 경기 '이만기 vs 강호동' 재연

최강 꺾고 천하장사 등극한 최희화 선수



2017년 11월21일 창단한 안산시청 여자 씨름부가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심에 있는 최희화 선수(무궁화급 -80kg)는 지난해 기존 최강이라고 불리는 임수정(콜핑) 선수를 꺾고 천하장사에 등극했으며, 올해 2년 연속 천하장사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써가고 있다. 추석 대회를 앞두고 한창 훈련 중인 최희화 선수를 조심스럽게 만나봤다.

Q. 씨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용인대학교 유도지도학과 재학 중, 먼저 씨름을 시작한 동생의 연결로 이태현 교수님(전 천하장사)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후 다른 지역에 씨름단이 창설됐고, 교수님의 추천으로 무궁화급 선수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최희화 선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아침 8시30분에 훈련장에 나와서 1시간 러닝머신,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웨이트

트레이닝,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씨름 훈련,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웨이트 또는 러닝머신을 합니다.

Q. 주특기가 뭔가요?

장기전 선수인데요. 뿌러치기랑 안다리입니다.

Q. 큰 경기를 앞두고 세리머니 등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세리머니를 준비하면 꼭 경기에서 안 좋은 결과를 얻어서 따로 준비는 하지 않고, 심정이 얼굴에 잘 드러나는 편이라 차분하고 웃으면서 경기할 수 있도록 연습 중입니다.

Q. 안산시청 소속된 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좋은 감독님과 코치님을 만나서 소통이 원활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Q. 주말 혹은 쉬는 날에는 다른 취미가 있나요?

요리를 하거나 맛집 탐방을 좋아하고, 안산에서는 김가네 낙지집, 양푼갈비집을 자주 갑니다.

Q. 향후 장기적인 계획이 궁금해요.

현재 28살인데, 10년은 더 천하장사를 유지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 후에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세리머니하는 최희화 선수

한편 안산시청 여자 씨름단에는 최희화 선수 외에도 이연우 선수(매화급 -60kg)가 단오장사에, 김다혜 선수(국화급 -70kg)는 설날장사에 각각 등극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 문의 : 안산시청 씨름단 조경덕 감독(010-3129-5931)
인치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신중년
일자리
시리즈

시정(市政)을 알리고 민의(民意)를 구합니다 통계조사요원...사회 참여하고 넓어진 시야까지 얻게 돼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안산 시정에 참여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직이 있다. 설문문을 통해서 추진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정책수립의 토대가 되는 시민의 의견을 구하는 '통계조사요원'도 그중 하나다.

안산시는 매년 1·6·8월 사업체·광업·제조업·사회 조사와, 5년 주기 인구주택 총조사, 그 이전해의 기초조사까지 3~5회의 통계사업을 진행한다. 해마다 이뤄지는 안산시의 각종 통계조사는 보름에서 한 달 반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적게는 25명 많게는 150여명의 조사요원이 투입된다. 통계조사요원은 사업시작 약 한 달 전에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급여는 통계조사 성격에 따라 하루 6만6천원에서 8만원의 일당이 적용된다.

통계조사 업무는 시에서 시행하는 노인복지·주거·교통·청년·여성·환경·경제 등 다양한 정책에 대해 알게 되고, 일을 수행하면서 시야도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일일이 시민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해야하는 통계조사요원의 일은 만만하지 않다. 낯선 사

람을 경계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또 시민사이에 통계조사의 필요성과 인식이 부재할 때 통계조사요원들이 받는 심적 부담은 적지 않다.

다음은 8년차 통계조사요원으로 활동 중인 황분녀(57·호수동) 씨와의 일문일답이다. 그의 경험담을 들어보자.

Q. 통계조사요원 경력에 상당하다. 어떻게 일을 시작하게 됐나?

2010년 통장을 하면서,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를 받았다. 서류내고 면접에서 합격해 일을 시작했고, 이후 조사요원 모집공고가 날 때마다 지원했다.

Q. 통계조사요원의 매력을 말해 달라.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일이라 내 시간을 가지면서 시간 구매 없이 일할 수 있어서 좋다. 물론 조사기간 안에 반드시 조사를 마쳐야 한다는 전제 하에서다.

Q.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가가호호 방문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다. 통계조사요원 일을 처음 시작했던 2010년만 해도 조사를 나가면 열 집에 한 집 꼴로 박대를 당했다. 지금만큼 통계조사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지만, 지금도 그런 경우가 아주 없진 않다. 하지만 대다수 많은 분들이 친절히 대해주고 설문문에 적극 답해줘 계속 할 수 있었고 이 일에서 얻은 보람도 크다.

조사를 다녀보면 사람 사는 모습은 어디나 비슷하면서 제각기 다르다. 그 다름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타산지석이 됐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도 넓어졌음을 느낀다.

◇ 문의 : 안산시 정보통신과(031-481-2820/2084)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대부포도, 안산의 이미지를 바꾸다

풍부한 일조량, 바닷바람으로 당도 높아, 포도축제와 와인으로 관광객 유입

대부도 포도

대부포도는 재배지의 일조차가 크고 일조량이 풍부해 바닷바람을 받아 포도 맛이 좋기로 유명하다. 당도가 평균 15브릭스(brix) 이상으로 일반 포도보다 당도가 뛰어나며 향이 진하고 달달해 소비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태풍과 가뭄 등 유난히 잦은 기상이변에 신경을 쓴 농부들의 수고에 국내를 넘어 해외수출까지 판로를 넓혀 지금은 안산 대부도 포도가 전국 최고의 포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대부지역에 포도가 처음 들어온 것은 6.25전쟁 직후인 1954년으로 북4리(10통) 정경선 씨가 캠벨 50여주를 심은 것이 시작이다. 이때는 자가 소비수준에 머물렀으며 본격적인 포도재배가 계기가 된 것은 1980년 구광회 농촌지도사의 지도로 동6리 김석배 씨가 캠벨 500주, 거봉 200주를 식재해 1983년 높은 소득을 올리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이후 포도재배면적이 급속하게 증가해 1984년 30ha, 1990년 150ha, 1995년 300ha, 1997년 이후 400ha 이상의 면적에서 포도가 재배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부도 포도는 바닷가의 시원한 해풍과 적절한 습도, 큰 일조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포도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두루 갖춘 천혜의 입지 조건에서 재배되어 껍질이 두껍고 당도가 타 지역 보다 3~4도 높고 향기가 진한 것이 특징이다.

안산시 대부포도는 경기도농원기술원이 주최한 올해 8월 '경기도 포도 품평회'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지난 8월 23일에 열린 경기도 포도 품평회 행사는 국산과일의 생산증진과 다양한 이벤트 및 시식체험 등을 통해 경기과일의 홍보와 소비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대부포도는 샤인머스켓 포도 부문에서 ▲대상(러브농원 신철선) ▲우수상(승민농원 임유선)을, 거봉 포도 부문에서 ▲대상(명품농원 박세진) ▲최우수상(큰산농원 박남수)을 수상하는 등 2개 부문에서 4개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특히 샤인머스켓 포도는 현재 국내 소비자들에게 선호하는 과일 1순위로 일반포도에 비해 당도가 높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매우 인기 있는 과일이다.

안산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산 포도산업의 집중육성을 통해 대부포도가 대한민국 명품 농특산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랑꼬또 와이너리는 연간 10만병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캠벨얼리 품종으로 만든 그랑꼬또 레드·화이트·로제·아이스와인과 로제와인인 'M56', 로제스파클링인 'M5610', 국내 육성 품종인 '청수'로 만든 화이트와인 그랑꼬또 '청수' 등 다양한 와인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수도권 유일무이한 와이너리이다.

지난 8월 30~31일 안산 그랑꼬또 페스티벌에서는 와이너리 투어는 물론 국가대표 소믈리에의 와인 강좌, 와인 메이커와의 만남, 와인 족욕, 와인병 공예 등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돼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바닷가의 뜨거운 열기와 습도, 낮과 밤의 큰 기온 차, 미네랄이 풍부한 토양 등 포도 성장에 필요한 환경을 두루 갖춘 천혜의 입지 조건에서 재배돼 껍질이 두껍고 저장성이 뛰어나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대부특산작물인 대부포도를 맛보길 권한다.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그랑꼬또 와인

'그랑꼬또'는 큰 언덕이라는 의미의 프랑스어로, 대부(大阜)에서 나온 이름이다. 안산의 특산물인 포도를 이용해 만든 '그랑꼬또 와인'은 1996년 설립된 그린영농조합이 생산하고 있다. 독특한 와인의 맛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다.



본오1동 · 와동 주택밀집지역에 자원순환센터 설치

재활용품 여기에 배출해 주세요, 환경정화 · 자원 재활용 앞장



본오1동 자원순환센터

각 가정의 재활용품 배출 방식은 거주지에 따라 다르다.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에서는 모든 가구가 일정한 요일, 정해진 시간 · 장소에 재활용품을 배출한다. 다가구나 다세

대 주택이 밀집한 일반주택단지에서는 거주민이 원하는 아무 때나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함께 집 앞에 내놓는다.

안산시는 본오1동행정복지센터 앞과 와동 강서고 뒤편 주택밀집지역에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을 설치한 자원순환센터를 마련해 일반주택단지의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자원 재활용에 앞장서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재활용품을 언제나 자원순환센터에 배출가능하다. 오전 9시부터 11시, 이곳을 이용해 재활용품을 버리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재활용품 36리 이상 배출 시 10L, 1일 1장)도 받을 수 있다. 센터 관리인이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관리와 센터 운영, 주변 청결관리까지 맡고 있다.

단원구 와동 주민 김모(78) 씨는 "자원순환센터가 주택가

곳곳에 생기면 동네가 한결 깨끗해질 것 같다"며 환영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재활용 가능 물품이 그냥 버려지면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뿐 아니라 자원이 낭비되는 만큼 주택밀집지역에 분리수거함이 설치된 자원순환센터를 계속 늘려가겠다"며 "주민 여러분이 이곳을 활용하면 깨끗하게 환경을 유지하며 자원도 절약하게 된다."

또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된다"며 적극 활용을 당부했다. 안산시는 본오1동 · 와동 자원순환센터 시범 운영을 거쳐 계속해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 문의 : 안산시 자원순환과(031-481-3538) 백미란 명예기자_whity0218@naver.com

2019 안산시 평생학습한마당

개성 넘치는 평생학습 체험부스 프로그램 준비... '배우고 나누고 함께 성장하자!'

'2019 안산시 평생학습한마당'이 10월9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열린다. 평생학습한마당은 지역과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함께 어울리고 즐기며 평생학습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에는 평생학습 기관과 학습동아리가 운영하는 체험 프로그램, 학습동아리 공연 발표 무대, 성인문해교육(문자해득교육) 시화전 작품 전시, 포토존, 특별 체험부스, 공연 등 특별 이벤트가 진행된다.

평생학습 홍보 체험부스

행사장에는 길거리학습관-대동학원, 안산나무를심는장 애인야학, 안산용신학교, 안산청소년문화의집, 안산화정영 어마을 등이 참여해 30여개의 평생학습 홍보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한지로 액세서리', '한글 사랑 캘리그래피 행사', '책이랑 놀자', '쇼콜라마루 수제초콜릿 체험' 등이 진행되고, 성인과 실버를 대상으로 하는 '행복의 반올림', '인생은 즐거운 거야', 아동을 위한 '파스타면 만들기/English Quiz Show'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산시 문해교육 기관 10여 곳의 학습자들이 참여한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 전시도 열린다. 학습자들의 삶의 애환과 희망이 가득한 시화작품을 만날 수 있다.



성인문해교육 시화전 작품이 전시된 안산문화광장

평생학습도시 조성하는 안산시

안산시는 배우고, 나누고, 즐기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다양한 평생학습자료 및 정보제공, 전국평생학습축제 참가, 우수하고 다양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발굴·지원, 비문해 성인들에 대한 제2의 교육기회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들이다.

한편, 지난해 평생학습한마당은 '2018 유네스코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선정'에 따른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가입 선포식을 열고 글로벌 평생학습 추진과 시민들에게 안산시 평생교육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창구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문의 : 안산시 평생학습과(031-481-3805)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시 무인 공공 자전거 페달로, 대여·반납 쉬워진 'S-페달로'로 진화한다

스마트허브 내 17개 정거장서 내년까지 시범운영...향후 문제점 보완해 시민 불편 최소화

안산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13년 무인 공공 자전거 시스템인 페달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페달로는 안산시의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아왔다. 아울러 건강한 사회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페달로의 단점으로 부족한 자전거 정거장을 꼽았다. 자전거 대여와 반납을 위해 정거장을 찾아다니는 불편함과, 거치대가 부족하면 반납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기존 페달로 대여 방식을 개선한 'S-페달로'를 도입하고 시범운영에 나섰다.

기존 페달로는 자전거에 설치된 무인정보 단말기 키오스크와 자전거 보관대가 설치된 지정 자전거 정거장을 이용해 반납해야 했다면, S-페달로는 키오스크 없이 자전거 반납이 가능하다. GPS를 활용해 자전거 정거장으로 지정한 특정 지점에 자전거를 가져다 놓은 뒤 페달로 자전거에 부착된 QR코드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반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존 반납과는 달리 페달로 보관대에 잠금장치를 연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시범운영은 스마트허브(반월산단)에서 8월19일부터 시작했다. 산단 근로자들의 출퇴근 보조수단으로 실시되며, 17개의 정거장에서 215대의 자전거가 이용된다. 내년까지



공유자전거(S-페달로) 정거장 위치도

| 연번 | 정거장명 | 연번 | 정거장명 |
|----|-------------------|----|-----------|
| 1 | 원곡역 | 10 | 계양전기 |
| 2 | 원시역 | 11 | 미원상사(주) |
| 3 | 스마트허브 제1공영주차장 | 12 | 장현금속 제2공장 |
| 4 | 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앞 | 13 | 신일정공 |
| 5 | 별망성공원 | 14 | 센텍 |
| 6 | 동환물산 | 15 | 한양기공(주) |
| 7 | (주)경방 | 16 | 대열보일러 |
| 8 | TRW스티어링 | 17 | 화인산업(주) |
| 9 | 원시운동장 | | |

시범운영을 통해 S-페달로의 장·단점을 파악, 추후 자전거 이용에 따른 불편함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허브 내 17개 S-페달로 정거장은 원곡역, 원시역 등 지하철역과 그 외 기업체, 주차장 등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한 곳에 지정됐다.

회사원 이지희(일동 거주) 씨는 "평소에 페달로를 잘 이용하고 있다. 출근길에 역에서 내려 페달로를 타고 가는데 다행히 회사 근처에 자전거 정거장이 있다. 하지만 퇴근할 때는 집 근처 자전거 정거장이 멀어 15분 거리를 걸어가야 한다. S-페달로처럼 자전거 거치대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면 훨씬 이용이 편할 것이다. 빨리 안산 전 지역으로 확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고 S-페달로의 도입을 반겼다.

안산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시 전역에서 대여·반납이 가능하도록 해놨지만, 아무 곳이나 방치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물리적 제약 없이 지정 자전거 정거장에서만 대여·반납하는 S-페달로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파악해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 페달로 이용자는 보유한 이용권을 그대로 사용 가능하며, 신규 이용자는 페달로 홈페이지 또는 페달로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 문의 : 안산시 교통정책과(031-481-2495)
박미영 명예기자_uzuin70@naver.com



안산시 제2호 금연아파트 지정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힘쓰는 안산푸르지오9차



안산시 상록수보건소는 안산푸르지오9차아파트(705가구)를 안산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은 본오동 그린쉐르빌B동(다세대주택)에 이은 두 번째로, 관내 아파트로는 최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세대주의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오는 12월2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상록수보건소 관계자는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하고 깨끗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원하는 공동주택에서는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및 동의서를 작성, 공동주택 세대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031-481-5926)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실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수준은 올리고! 경제적 부담은 내리고!’



안산시 상록수 · 단원보건소는 출산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가사지원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

금으로 이뤄져 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청소년 미혼모 산모)에 속하면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기간은 태아유형(단태아, 쌍생아, 삼태아 이상)과 출산순위(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에 따라 기간이 각각 설정되며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25일까지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으로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기의 건강관리는 물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여부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031-481-5975~5978), 단원보건소(031-481-6471~6474)로 문의하면 된다.

알아두면 좋은 보건소 소식! 건강 알림 마당

수암보건지소, 부모랑 아기랑 오감쑥쑥 건강교실

- ◇ 교육내용 : 영유아 구강관리/영양관리/건강검진 교육, 베이비마사지, 촉감놀이, 풍선놀이, 컵 쌓기 등
- ◇ 교육대상 : 안산시민(안산시 거주 6~12개월 유아 및 보호자 20팀)
- ◇ 교육일시 : 9월 25일~10월 30일 매주(수) 오전10시30분~11시50분
- ◇ 교육장소 : 수암보건지소 3층 보건교육실
- ◇ 문의처 : 수암보건지소(031-481-5888)

치매예방의 첫걸음, 치매 조기검진 안내

- ◇ 검진대상 : 만60세 이상 안산시민
- ◇ 검진내용 : 치매선별검사, 치매진단검사, 치매감별검사
- ◇ 검진시간 : 월~금 오전9시~오후6시(점심시간 오후12시~1시)
- ◇ 검진장소 : 상록수보건소 3층(치매안심센터)
- ◇ 검진비용 : 무료 ◇준비물 : 신분증
- ◇ 문의처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803~7)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9)

치매어르신 등록서비스

- ◇ 대 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를 이미 진단받으신 분
- ◇ 필요서류 : 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선택)
- ◇ 내 용 : 치매치료비 지원(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맞춤형 사례관리, 위생 소모품 지원, 실종예방지원서비스, 인지치료프로그램 운영, 가족지원서비스
- ◇ 문의처 : 상록수치매안심센터(031-481-5803~7)
단원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481-6541~9)

A형간염 6 예방수칙

1

A형간염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 중단 권고

4

A형간염 고위험군*은 예방접종 받기

*B형·C형간염 환자, 간경변, 혈액응고질환자

2

조개류 익혀먹고 안전한 물 마시기

5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예방접종 받기

3

요리 전, 식사 전, 용변 후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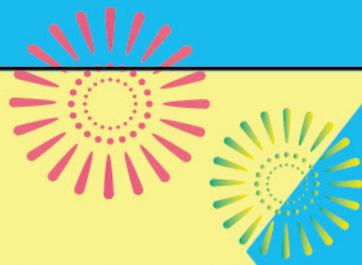
채소나 과일은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A형간염 예방접종

- 2012년 이후 출생자 : 보건소 및 전국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 지원
- ◇ 1차접종 : 생후 12~23개월 ◇ 2차접종 : 생후 24개월(1차접종 6~12개월 후)
- 2012년 이전 출생자 : 민간 의료기관에서 유료 접종 가능



한 눈에 보는 10월 안산시 동(洞)네 축제



하늘은 높고 산과 들은 알록달록 오색 빛으로 물들며 아침, 저녁으로 약간은 차가운 바람이 느껴지는 가을이 왔습니다. 선선한 날씨와는 다르게 안산시는 지금 축제의 열기로 핫해! 핫해! 이 동네 저 동네 신나는 축제 준비가 한창입니다. 10월의 맑은 날씨, 멀리 가을 나들이 가는 것도 좋지만 이웃과 인사도 나누고 다양한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안산시의 동(洞)네 축제를 함께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기타 자세한 프로그램 내용 및 문의사항은 해당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일시 : 2019.10.12.(토) 오후 12시
장소 : 한대앞역 광장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 및 전시, 홍보 체험부스, 축하공연 등
문의 : 031-481-5521

사동



가을문화예술축제

일시 : 2019.10.19.(토) 오전 10시
장소 : 사동 어울림공원(대동서적 사거리 건너편)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및 전시, 먹거리장터·체험부스 운영
문의 : 031-481-5532

해양동



하하호호 락(樂) 축제

일시 : 2019.10.25.(금) 오후 4시
장소 : 청석초등학교 앞 미개통도로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축하공연, 체험부스 운영 등
문의 : 031-481-5464

본오1동



해란축제

일시 : 2019.10.12.(토) 오전 11시
장소 : 본오동 해란공원(본오1동 행정복지센터 옆)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주민노래 자랑, 학생 및 가수 특별공연 등
문의 : 031-481-5648

본오2동



보니마을축제

일시 : 2019.10.26.(토) 오전 10시
장소 : 본오동 먹자골목(삼골로)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보드게임, 토론회 개최 등
문의 : 031-481-5686

본오3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행사종료 후 상록수문화제 예정)

일시 : 2019.10.26.(토) 오후 1시
장소 : 본오3동 공영주차장 (본오동 878-7)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청소년 댄스대회, 학생오케스트라 연주
문의 : 031-481-5506

월피동



달빛축제

일시 : 2019.10.5.(토) 오후 5시
장소 : 월피동 시낭운동장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 발표회, 먹거리장터·체험부스 운영, 경품추첨
문의 : 031-481-5508

성포동



가을소나타

일시 : 2019.10.26.(토) 오후 1시
장소 : 성포동 노적봉공원 장미원
내용 : 관내 기관 동아리팀 공연 및 외부 초청공연, 아나바다장터·체험부스·포토존 운영
문의 : 031-481-5410

반월동



반달마을축제

일시 : 2019.10.19.(토) 오전 10시
장소 : 반달공원(반월새싹길 9-10)
내용 :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 축하공연, 체험부스·먹거리장터 운영 등
문의 : 031-481-5521

안산동



안산읍성 문화예술제

일시 : 2019.10.19.(토) 오전 11시
장소 : 안산동 관아지터 (수암동 256-1)
내용 : 고유제, 천년안산음악회, 줄타기, 휘호대회, 전통문화및 민속놀이
문의 : 031-481-5511



※일동 정감축제(9월21일)와 중앙동 태봉예술축제(9월22일)는 18~19면에 소개됩니다.
 ※사이동·부곡동은 지난 4월 13일 '감골 사이좋은 벚꽃 축제'와 '세대공감 한마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대부동 대부포도축제는 태풍 '링링'으로 인해 취소되었습니다.



와동



한가족어울림축제

일시: 2019.10.5.(토) 오전 10시30분
장소: 와동체육관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문의: 031-481-5648

고잔동



문화마을축제

일시: 2019.10.11.(금) 오전 11시
장소: 원고잔공원 야외무대(고잔동 산 87-3)
내용: 주민노래자랑, 태권도 시범, 색소폰·클래식 중창공연 등
문의: 031-481-6330

호수동



호수별빛문화축제

일시: 2019.10.18.(금) 오후 4시(예정)
장소: 안산문화광장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체험부스 운영
문의: 031-481-6531

원곡동



제2회 꼬치축제

일시: 2019.9.28.(토) 오전 11시
장소: 원곡동행정복지센터 앞 공터 및 주차장
내용: 다문화 꼬치구이 판매,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회, 다문화 전통공연 등
문의: 031-481-6704

백운동



사랑마을축제

일시: 2019.10.19.(수) 오전 10시30분
장소: 보성사거리 차 없는 거리(단원구 원초로 일원)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플리마켓·체험부스·팝업도서관·놀이터 운영
문의: 031-481-6706

신길동



낭만정원축제

일시: 2019.9.28.(토) 오후 2시
장소: 신길온천역 주변(신길동 1411~1413)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주민장기자랑, 초대가수 콘서트, 체험부스 운영
문의: 031-481-6660

초지동



둔배미마을 파도정원 축제

일시: 2019.10.11.(금) 오후 2시
장소: 초지동 파도공원 (신촌3길 11 옆 공원)
내용: 마을정원 나무(꽃)심고 가꾸기, 체험부스·먹거리부스 운영
문의: 031-481-6737

선부1동



선부리축제

일시: 2019.10.5.(토) 오후 1시
장소: 선부동 선부광장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및 주민축제
문의: 031-481-6738

선부2동



석수골축제

일시: 2019.10.12.(토) 오후 1시
장소: 석수골운동장(선부동 1068)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작품발표 및 전시, 주민노래자랑, 체험부스, 초청축하공연 등
문의: 031-481-6739

선부3동



선녀마을 생생마을한마당

일시: 2019.10.26.(토) 오후 1시
장소: 선부중학교 체육관
내용: 주민자치프로그램 공연·작품발표회, 마을정원·체험부스 운영
문의: 031-481-6927

문화프로그램, 동주민센터 최고를 가린다

안산예당 해돋이극장에서 市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 열어



문화프로그램 대상을 수상한 해양동 '음악마을'팀

2019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가 9월5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22개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배운 주민들이 저마다 갖고 닦은 기량을 행사장을 찾은 안산시민들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공연에 참가한 팀은 댄스 9개 팀, 타악 5개 팀, 음악(악기) 6개 팀, 무용 2개 팀 등 총 22개 팀이다.

행사는 프로그램 경연과 함께 우수작품 전시, 시상 순으로 진행됐다. 우수작품 전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해돋이극장 로비에서 75점이 전시되면서 시민들을 반겼다.

마지막 행사인 시상은 대상 1팀, 최우수 2개 팀, 우수 3개 팀 등 모든 출연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주최 측이 배려했다. 이날 행사에 앞서 주민자치센터 시험회장 이·취임식도 이뤄졌다. 또 프로그램을 마치고 결과 발표가 있기까지 잠시 여유 있는 시간에는 지난해 대상을

수상한 신길동 벨리팀의 축하공연도 선보여졌다. 신길동의 축하공연이 이뤄질 때는 객석에 앉아 있던 시민들도 함께 어우러져 즐기는 시민 대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첫 번째 공연에 나선 대부동 '두리라인'팀 20명은 지난해 창단한 대부지역 주민 및 기관 소속 직장인으로 구성된 팀으로 다양한 축제(대부도 축제, 대부한마음 축제 등) 초청공연에 참여해 시민들과 함께 해온 팀이다.

22번째 마지막 공연은 안산동팀이 나섰다. 23명으로 구성된 라인댄스 '미스코리아'팀은 무대를 누비며 화려한 공연을 선보였다. '미스코리아'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안산동 라인댄스팀으로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바쁜 일상이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날 공연의 대상은 해양동 '음악마을'팀이 차지했으며, 최우수 2개 팀은 일동 '성호풍물단'팀과 선부3동 '조이플'팀이 차지했다. 대상을 차지한 해양동 '음악마을'팀은 2013년에 창단해 2014년 안산시 주민자치센터 동아리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지난해에도 우수상을 수상한 경력을 갖고 있다. 끈끈한 팀워크와 아름다운 기타 하모니로 안산시 관내 각종 행사와 복지시설에 재능기부를 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팀이다.

이날 경연에서 라인댄스로 무대에 오른 대부동 '보나라인'팀 최명옥씨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지만 회원 간 친목은 물론 다른 동 사람들과도 친해지는 계기가 마련돼 좋다"면서 "대부동 같은 경우는 서로 만남의 시간이 부족한데 경연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회원 간 친하게 되는 계기가 돼 좋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문의 : 안산시 자치행정과(031-481-3445)
김효경 명예기자_poet-hk@hanmail.net



행정 · 의회 · 교육 · 시민이 손잡고 환경교육도시 선언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 2019 안산환경한마당 개최



안산문화광장에서 개최된 2019 안산환경한마당

환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참여를 다지는 의미의 '2019년 안산 환경한마당'이 9월21일 안산문화광장 내 전망대 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푸른 하늘을 위한 오늘의 한 걸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안산시·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유관기관, 환경단체, 학생 및 지역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안산환경한마당은 뮤지컬 공연, 환경교육도시 선포식, 지구촌 합창단의 축하공연, 난타 공연, 미세먼지 환경 퀴즈대회, 이색자전거 체험 등 다양한 문화행사와 체험 프로그램이 열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

무대 행사 뿐 아니라 광장을 가득 메운 환경 관련 부스들이 시민들의 발걸음을 잡았다.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재단, 안산YWCA, 안산YMCA 등 환경을 주제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준비한 다양한 부스는 물론 관내 중·고등학교 환경 동아리들이 참여해 '천연 공기청정기 만들기', '태양광 스마트폰 충전기 만들기', '천연 가습기 만들기' 등 청소년들의 아이디어가 빛나는 프로그램들이 이어졌다.

그리고 무대 옆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 의견을 듣는 '미세먼지 환경정책 박람회'가 진행됐다. 미세먼지는 최근 가장 큰 환경 이슈로 올해 4월 지역 환경단체들의 주관으로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토론회'가 열려 시민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환경한마당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4월 원탁토론회 이후 지역별, 집단별 다양하고 더 구체적인 현실을 수렴하기 위해 청소년, 청년, 마을 주민, 노동자 등 소규모 토론회를 진행했고, 이후 11월 정책토론회를 통해 시의 환경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나정숙 안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안산이 환경교육도시임을 선언하는 이번 환경한마당이 더 큰 의미로 다가온다"며 "특히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이 동참하면서 이후 학생들의 교육과정에 환경교육이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산시의회는 그런 과정에 발맞춰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채택했고, 환경교육지원 조례도 제정한 바 있다"며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셔서 가능했고, 앞으로도 환경을 지키는 실천에 동참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념식에서는 김동규 안산시의회 의장, 이동홍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 교육장, 김학수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 대표가 함께 서명한 '안산환경교육도시 선언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문의 : 안산의제21(031-483-0221) / 황정욱 명예기자_loosedom@hanmail.net

안산에서 즐기는 세계 음식



나시고령 (Nasi goreng)



CNN 선정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로 소개된 적 있어

나시고령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이다. 말레이인도네시아어로 나시(Nasi)는 밥, 고령(Goreng)은 볶는다는 뜻으로, 볶음밥으로 이해하면 된다. 쌀 문화 국가라면 볶음밥은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나시고령은 2011년 CNN에서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 50개 중 2위에 꼽혔다. 주된 선정 이유는 2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호불호가 없는 맛 때문이다. 동남아시아 요리의 특유의 향신료 냄새나 맛이 강하지 않은 편이다. 중국집에서 먹을 수 있는 볶음밥을 짜장 없이 먹는 맛과 비슷하다. 들어간 재료를 씹는 맛은 나시고령이 더 좋다. 나시고령을 주문하면 기본적으로 크루푹이라는 것과 같이 나온다. 크루푹은 해물맛 튀김으로 국내의 하얀색 새우 맛 과자와 유사하다. 추가 재료로 소고기, 해물 등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페이스북으로 진행된 투표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페이스북 사용률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의 국가적 집중 현상이 일어났을 수 있다.

나시고령의 유래는 동남아시아의 기후적 특색과 연관되어 있다. 인도네시아는 적도를 중심으로 북위 5도에서

남위 10도 사이에 위치하므로 완전한 열대성 기후를 보이고 있다. 연중 거의 전 지역이 25~27도를 기록하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한다. 음식을 한 번에 많이 하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또 점심에 먹은 음식을 버리지 않기 위해서 볶았던 것이 나시고령이 됐다.

나시고령은 기본적으로 밥을 고기, 채소, 해산물과 직접 만든 소스로 볶아 만든 것인데,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해먹는 김치볶음밥과 상당히 유사하다. 재료는 밥, 칼데일새우, 대파, 양파, 다진 마늘, 고추, 계란, 굴소스, 후추, 맛술, 액젓이 필요하다. 먼저 간장과, 굴소스, 맛술, 설탕, 후추를 통해 양념을 만든다. 그 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마늘, 고추, 계란, 대파를 볶는다. 잠시 후 칼데일새우를 넣어 다시 한 번 볶아준다, 새우가 익어가는 시점에 밥을 넣어 다시 한 번 볶고 계란을 밥과 분리해 볶아주면 끝이다.

아직 안산 다문화 음식거리를 방문해보지 않았거나 도전적인 음식이 부담되는 사람들은 나시고령을 시작으로 세계음식을 접하면 좋을 것이다.

인차광 명예기자_chee0806@naver.com

“마을계획, 주민역량이 성장하며 자치의 토대를 만드는 일”

안산 마을계획 교류회 ‘안산 마을계획을 말하다’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개최된 안산 마을계획 교류회

마을계획을 함께 공유하고, 향후 방향성과 활성화 방안을 토론하기 위한 자리인 안산 마을계획 교류회 ‘안산 마을계획을 말하다’가 9월3일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렸다.

마을계획이란 마을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 주체로 종합적인 시각을 갖고 마을 진단부터 계획, 개선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현재 안산은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의 지원으로 모두 17개 동이 마을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있다. 동별 특성과 참여도에 따라 마을계획 유형은 3 단계(마을조사, 마을계획, 마을의제)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현재 4개 동은 마을조사, 5개동은 마을계획, 8개 동은 마을의제 실행 단계를 밟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마을활동가, 공무원 등 150여 명의 안산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큰 관심 속에 실효성과 대표성을 갖춘 마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부에서는 발제를 통해 일동과 월피동, 사동의 마을계획수립 및 실행 사례를 공유하고, 안산 마을계획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한 후, 2부에는 4개 주제(사람모으기, 실행방안 및 예산확보, 주민협의회 구성, 마을계획과 행정협력)로 나눠 참여자들과 원탁 토론을 진행했다.

2016년에 마을계획을 수립한 일동 사례를 발표한 오병철 우리동네연구소 퍼즐 이사장은 “일동은 문화체육센터 등의 공공건물 건립도 디자인 대학을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마을에 다양한 재능을 가진 분들과 연결돼 공통의 관심을 서로 나눌 수 있는 많은 소모임이 만들어졌다”며 “마을계획은 행복해지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달 뜨는 언덕 월피동마을계획기획단 조은정 사무국장은 “월피동은 지난해 마을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 소규모마을재생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민 주도로 행정과 파트너가 돼 지역 문제를 해결해나간 사례가 아직 전국에 많지 않아 결과물이 주민자치의 시범을 만들어나가는 중요한 사례가 된다. 이 과정을 잘 만들어가기 위해 돌아 가더라도 주민조직이 움직일 수 있는 판을 벌여주면서 행정과 파트너십을 탄탄히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 관계자는 “마을계획의 성과는 주민들이 행정시스템 안에서 해결 받지 못하고 부족했던 부분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역량이 성장하면서 진정한 자치의 토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살기 좋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일에 주민들이 끝까지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 문의 : 안산시마을만들기지원센터(031-409-7960)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net

지역예술가와 함께 만드는 ‘찾아가는 상록문화콘서트’

가까운 공연장에서 쉽게 접하는 음악·마술·난타...가을 정취 함께 느껴봐요



예술과 어울리는 계절, 가을이 찾아왔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일부러 시간을 들여 공연장을 찾지 않아도 다양하고 알찬 문화행사가 진행되고 있으니 일상에서 쉽게 예술을 만나보자.

상록구는 올해도 일상 속에서 접하는 자연스런 문화공연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찾아가는 상록문화콘서트’를 진행한다.

찾아가는 상록문화콘서트는 9월21일 토요일, 첫 공연을 시작으로 10월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4차례, 유동인구가 많은 상록수역과 한대앞역 광장에서 펼쳐진다. 프로그램은 안산에서 활동하는 지역가수들의 공연, 마술, 난타, 댄스 등 자유롭고 다양한 공연으로 채워지며 시간은 오후 4시부터 5시 30분까지 90분간 진행된다.

1회 공연이 진행 된 상록수역 교각아래 공연장,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들과 만남의 광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언제나처럼 상록수역 광장에는 유동인구가 많았다. 무표정하게 바쁜 걸음으로 광장을 지나던 시민들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길을 멈추고 공연을 관람하기도 했다.

선채로 잠시 공연을 관람하던 한 시민은 “매일 전철을 이용하고 있는데, 오늘처럼 상록수역 광장에서 문화행사가 종종 열리더라. 별 생각 없이 지나치기만 하던 공간에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기분일까, 공연 덕분에 잠시 쉬어 갈 수도 있고, 일상의 여유를 갖게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마지막 공연에는 안산에서 활동하는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졌는데, 공연막바지에 이르자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할 만큼 시민들의 호응이 이어지기도 했다.

가수 ‘주연(한울타리밴드)’씨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보다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다는 것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역의 문화예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작더라도 이런 무대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록구 관계자는 “공연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대중가요와 다양한 장르로 구성돼 관객들이 충분히 즐겁고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즐기면서, 또 지역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체험의 기회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3차례 더 남아있는 ‘찾아가는 상록문화콘서트’ 세부일정은 ▲상록수역 9월28일 ▲한대앞역 10월5일, 12일이며, 공연 시작 시간은 토요일 오후 4시로 동일하다.

◇ 문의 : 상록구 행정지원과(031-481-5061)
송민아 명예기자_junseo1000@hanmail.net

9월16일부터 국제운전면허증 없어도 해외에서 운전 가능

별도 국제운전면허증 및 번역공증서 발급 생략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9월 16일부터 영국·캐나다·호주 등 해외 33개 국가에서 국제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이 가능한 ‘영문 운전면허증’을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한다고 밝혔다.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뒷면에 성명, 생년월일, 면허번호, 운전 가능한 차종 등 면허정보를 영문으로 인쇄하여 해외에서도 쉽게 운전면허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제작된다.

그간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서 운전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출국 후 한국대사관에서 운전면허증에 대한 번역공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정부 혁신의 하나로 영문면허증을 발급하여 별도 국제운전면허증이나 번역공증서 없이 해외에서도 편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권은 반드시 소지해야 한다.

신설되는 영문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 신규 취득·재발급·적성검사·갱신 시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면허 재발급·갱신 시에는 전국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영문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분증명서와 사진, 기존 면허증 발급 수수료 7천 500원에 2천 500원을 더한 1만원(적성검사 시 1만5천원)의 수수료가 필요하다.

◇ 문의 : 경찰청 교통기획과(02-3150-2153)

우리동네 이야기

안산시 각 동을 대표하는 주민 25명과 다문화가정 주민 3명으로 꾸려진 안산시 생생마을기자단은 2019년 8월 7일을 시작으로 마을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시민들과 공감할 수 있는 글을 써내려갑니다. 기사 제목 좌측 QR코드를 스캔하면 스마트폰으로 기사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



'Eco friendly' 신재생 에너지 체험투어



안산에는 안산의 대표 관광 명소 9경을 볼 수 있는 '안산 시티투어'가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는데요. 친환경 전기버스를 타고 안산갈대습지(태양광), 시화조력발전소(조력) 등을 견학 및 체험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체험투어는 최근야 알게 되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체험투어는 15명 이상이면 단체 관람 형태로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산시에 한 대밖에 없는 전기버스에 몸을 싣고 지금부터 대부도로 떠나볼까요?

선부2동 / 이경옥 마을기자



선부3동



선녀마을정원 추석맞이 새단장



9월3일 이른 아침부터 선부3동 마을정원만들기협의회에서는 추석을 맞아 선부중학교 사거리에서 선부경로당까지 1.2km 거리를 예쁘게 새단장 해주셨습니다!

깨끗한 마을정원을 만들기 위해 선부3동 주민자치위원들과 마을 주민들이 꾸준히 마을정원을 가꾸고 관리하는 모습이 정원만큼 아름답습니다. 마을정원만들기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주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힘을 합쳐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선부3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자아자 파이팅!!

선부3동 / 정선주 마을기자



부곡동



살맛나는 쌀 나눔 행사

부곡동에서는 1994년 행정복지센터 개청 이후 설, 추석마다 쌀 나눔 행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쌀 나눔 행사가 15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는 데에 부곡동 주민으로서 강한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민족 최대 명절 한가위! 추석을 맞이해 외롭고 소외된 이웃 없이 지역 주민 모두가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부곡동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9월 4일 오후 1시, 부곡동행정복지센터 주차장에서 진행된 살맛나는 쌀 나눔 행사장으로 같이 가보실까요?

부곡동 / 박미숙 마을기자



고잔동



이웃과 함께 행복하고 따스한 명절보내기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는 지난 9월9일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취약계층 30가구에 따뜻하고 풍성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는 송편과 식료품 키트를 전달했습니다.

따뜻한 명절 보내기 사업은 설과 추석에 외롭고 적정한 어르신들 가정에 방문하여 안부를 묻고 잘 보내시라고 인사도 드리고 담소를 나누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회 특화사업입니다.

앞으로도 고잔동은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며 고잔동 슬로건 '정이 넘치는 문화마을 고잔동'을 잘 이어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고잔동 / 김희정 마을기자



월피동



온 마을 주민들이 행복해지는 광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광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안산시 상록구 광덕산 안길 20 광덕종합시장 3층 소재)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주택이 지역에 아파트 관리소처럼 행복지킴이 10분이 상주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과 공공서비스 제공하고 있어요. 안심택배보관소·생활공공대여소 운영, 아동안심등·하교 및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환경정비 및 재난재해 대비 안전 활동,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서비스,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주민들이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월피동 / 김고미 마을기자





'늘 푸르른(常祿)' 상록구에는 일동, 이동, 사동, 사이동, 해양동, 본오1·2·3동, 부곡동, 월피동, 성포동, 반월동, 안산동 등 총 13개 동이 있다. 파릇파릇 우리동네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일동

'정이가고 감흥 넘치는 일동마을축제' 개최

상록구 일동행정복지센터는 9월21일 성호공원 야외무대에서 주민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이가고 감흥 넘치는 일동 마을축제(이하 정감축제)"를 성대히 개최했다.

주민자치위원회 주관으로 4회째 맞이하고 있는 정감축제는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일동 대표 축제로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작품발표회와 주민참여 한마당, 체험 및 플리마켓, 먹거리 장터, 나눔장터 운영으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풍성한 축제를 만들었다.

특히, '일동자원순환마을만들기'를 위해 개인 텀블러나 접시를 가져오는 사람에게 먹거리장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고, 퇴비발효통 만들기 체험, 헌옷으로 장바구니와 머리끈 만들기 체험, 고장난 가전제품 수리 체험을 통해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까지 모두 자연스럽게 자원순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축제 관계자는 "단순히 즐기는 축제가 아닌 자원순환과 함

께하여 더 뜻깊은 축제가 됐다"며 "참여해주신 모든 주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성포동

'빛과 청림의 하모니' 로고젝터 설치, 안심마을 성포동, 이젠 밤길도 안전해요

상록구 성포동행정복지센터는 9월18일부터 성포동 관내 성포고등학교 앞 등 7개소에 안심지킴이 '빛과 청림의 소리' 로고젝터를 설치해 늦은 밤 어린이와 여성 등 주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왕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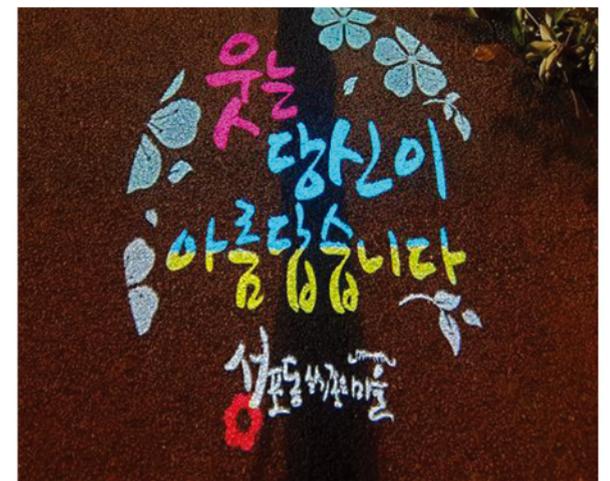
이번에 설치된 로고젝터는 기존에 설치된 범죄예방 표지판 및 현수막과는 다른 디자인 *셉티드를 적용해 문구와 그림을 투사시켜 바닥이나 벽에 이미지를 표출하는 장치로, 야간에 조명 효과가 높고 전달 효과가 뛰어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성포동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여성 등에게 밤길 보행도로는 안전성 외에도 심리적 안정감을 줄뿐만 아니라 마

음의 안심지킴이로서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되며, 오가는 시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고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국 성포동장은 "로고젝터의 설치는 청림문화 정착 및 어린이와 여성 등 가족친화적인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며, 앞으로도 따뜻한 이웃이 함께 하는 살기좋은 마을 성포동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셉티드(CPTED) : 도시계획 수립이나 건축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고려한 설계로 범죄기회를 사전에 차단하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계획'



반월동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별관 준공, 반월동 주민 복지증진·문화욕구 해소 기대

10월부터 상록구 반월동 주민들은 새로 지은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별관에서 쾌적하고 편안하게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산시 9월17일 반월동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인 '반월동행정복지센터 별관' 건립을 축하하는 준공식을 열었다.

반월의용소방대와 함께 사용하던 기존 행정복지센터 별관이 지난 2015년 건축물 안전정밀점검 결과 긴급 보수가 시급한 수준인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결정돼, 올 2월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착공에 들어가 7개월여 만인 이날 준공했다.

지상 3층, 연면적 694.22㎡ 규모로 건립된 별관에는 프로그램교실, 주민체육시설, 사무실 등이 설치됐으며, 주민교육,

주민들의 취미교실 등 지역주민의 소통을 위한 공유 커뮤니티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반월동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복지센터 별관을 통해 더 쾌적한 환경에서 복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주민자치프로그램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월동은 수원, 군포, 화성과 인접하고 수인산업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 전철 4호선이 관통하는 사통팔달 안산의 관문이나 동 전체 면적의 93%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행정복지센터 별관은 앞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여가 시설 등 편의시설 제공으로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단원구

조선시대 대표 화가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에는 와동, 고잔동, 중앙동, 호수동, 원곡동, 백운동, 신길동, 초지동, 선부1·2·3동, 대부동 등 총 12개 동이 있다.
따뜻한 이웃 우리동네의 소식이 궁금하다.

중앙동

제4회 중앙동 태봉예술축제 개최



단원구 중앙동행정복지센터는 중앙주공8단지 바상가 앞길(중앙주공8단지과 9단지사이)에서 '제4회 중앙동 태봉예술축제'를 개최했다.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태봉예술축제에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주민자치센터 작품을 발표·전시하는 것을 중심으로, 중앙동에 소재를 둔 서울예대, 중앙초, 덕성초 학생들의 공연과 중앙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초청한 장구난타와 KR-POP(전통가요) 공연 및 어린이연극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졌다.

또한, 분리수거밴드 등 전문공연팀의 공연과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체험(예쁜 글씨쓰기, 가훈쓰기, 도자기 만들기, 종이접기), 마을 만들기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들의 참여(프리저브드플라워 만들기, 레게머리 체험 등), 주민자치프로그램 전시회 및 Play zone을 운영해 축제의 흥을 더했다.

김경림 중앙동장은 "명실공히 지역축제로 자리잡은 태봉예술축제에 보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작년과 같이 도로를 통제하여 행사장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볼거리·즐길거리·놀 거리가 어우러진 중앙동 마을축제에 많은 주민이 참여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셔서 기쁘다"고 말했다.

고잔동

행복한 여성·건강한 노년을 그린다

단원구 고잔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내 생활고와 가족 상실로 심신의 어려움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음그림 테라피' 미술치료 사업을 시작했다.

마음그림 테라피 교육은 상반기에 이어 9월17일부터 3개월간 한 달에 두 번 진행하며, 17일 개강일에는 단원시립어린이집 아동 30여명이 어르신들의 하반기 수업 개강 축하를 위한 합창공연도 선보였다.

'마음그림 테라피' 노인인구 중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어르신들의 마음의 안정을 도모하고 생활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채화그리기와 레크리에이션 수업을 함께 진행한다.

특히 하반기에는 미술관 견학과 야외수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에 크레파스와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 수업을 진행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아크릴물감과 모양찍기 도장 등을 사용해 더욱 다채롭게 수업 내용을 구성했다.

임향미 위원장은 "상반기 참여 어르신들이 미술수업을 많이 기다리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에 하반기 사업을 준비하면서 매우 기쁘고 기대가 컸다"며 "개강일에 어르신들이 전보다 적



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을 보니 앞으로 고잔동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초지동

복지사각지대 없는 초지동 만들기

단원구 초지동행정복지센터는 9일 초지동 관내 14개 아파트 관리소장, 초지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공동주택(아파트) 위기가구 상시 발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체계 확대 및 관련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생한 증평 모녀 사망사건에 이어 최근 관악구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 고립된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초지동은 기존의 사회안전망과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으로 사각지대 발굴에 한계를 체감하고 선제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구축하는 네트워크 체계로 관리사무소에서 3개월 이상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단수가 예정되는 가구 및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 제보를 받아, 생활실태 조사 후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초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함께 민간자원을 연계해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역배 초지동장은 "먼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로 사각지대 없는 마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지역주민들이 행복한 초지동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5월 진행된 인문학아카데미 생생특강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으로 소소한 행복과 삶의 활력 높여 안산문화재단, 차별화된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

안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아카데미 프로그램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상반기에 개강한 '인문학 아카데미 생생특강'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안산문화재단이 지난해 하반기 기초 계층수립부터 시범사업, 다양한 벤치마킹까지 꼼꼼히 기획해 마련한 예술아카데미다. 이처럼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안산문화재단은 수료형 강좌를 보다 다양하게 마련해 예술아카데미가 동호회를 기반으로 마을 커뮤니티 등의 역할을 한다는 구상이다. 또한 강좌 수강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카데미 수료가 연속 활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한편, 모든 연령대가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려할 방침이다.

예술아카데미 '문화나눔' 프로그램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문화예술 역량 강화와 활기찬 노년 생활을 즐기도록 마련됐다. 어르신과 다른 세대 간의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관계를 맺으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적·사회적 세대 격차를 해소하는 것도 주된 취지 중 하나이다.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문화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놀이 경험으로 소소한 소통과 행복을 느끼고, 건강도 챙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건강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미술·문학·무용·걷기 등 다양한 분야가 접목돼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각 프로그램은 참여 연령대가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안산문화재단에 문의 후 참여해야 한다.

10월에 진행되는 문화나눔 프로그램은 '나를 제대로 사랑하기-제대로 걷기', '나도 미술가!', '나에게 쓰는 편지-내 인생의 자서전', '감성 무용 여행' 등으로 모두 무료로 진행된다.

매주 수요일 운영되는 '나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 부모님을 생각하며 글을 써보고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돌아보는 등의 의미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 '문화나눔' 프로그램 | |
|--------------------------------|------------------------------------|
| 강좌명 | 요일 및 시간 |
| 나도 미술가! | 10/7~11/25 매주 월요일(오전 10시~12시/2시간) |
| 나에게 쓰는 편지 내 인생의 자서전 | 10/16~12/04 매주 수요일(오전 10시~12시/2시간) |
| 나를 제대로 사랑하기 제대로 걷기(60세~75세) | 10/10~11/28 매주 목요일(오전 10시~11시/1시간) |
| 감성 무용 여행 (45세~60세) | 10/10~11/28 매주 목요일(오전 11시~12시/1시간) |

2019년도 인문학 아카데미 생생특강

오는 11월에도 따끈따끈한 강좌가 기다리고 있다. '아고라, 광장으로', '국악-창작국악 촬영수 시대에 따라 새로 창작되는 국악 감상', '대중 예술 미학과 디즈니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은 11월 27~29일 오전 10시에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다.

고대 그리스 시기, 아고라는 연극이 상연되는 극장이자 시민들이 모여 자유롭게 토론을 벌이던 화합의 장소였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불러일으킨 논쟁을 그때 당시처럼 재현하는 '아고라, 광장으로'는 11월27일 진행된다.

재단 관계자는 "인문학 강좌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규강좌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031-481-0524, 0529)
이선희 명예기자_iamyou70@hanmail.net

안산 근대교육을 이끌던 안산초, 개교 120주년 맞아

안산초 120주년 역사와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식 열려



안산초 개교 120주년 행사 기념촬영

안산초등학교 개교 120주년을 맞는 기념행사가 9월10일 안산초 강당에서 열렸다. 안산초는 책걸상에 앉아 서구의 학문을 공부한 안산지역 최초의 근대적 학교이자 경기도에서는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가진 학교다. 기념식에는 지역 주민과 교직원,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안산초의 역사적 의미를 함께 되새겼다.

박완식 안산초 교장은 환영사를 통해 120주년 기념식의 특별한 의미를 설명했다. 박 교장은 "사실 본교는 2012년에 개교 100주년 기념행사를 했지만, 올해 7년이 아닌 13년을 더해 12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학교의 잃어버린 역사를 새로 찾아 바로 세웠기 때문"이라며 "13년을 거슬러 올라가 고종황제 대한제국 시절 본교가 세워졌다는 것은 안산초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뜻한다"고 했다. 이어 "학교 역사를 짚 찾아보며 안산초가 마을 사람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유지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됐다"며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서 학교의 소중한 역사를 말씀드릴 수 있어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안산초 120주년의 역사와 의미를 살펴보는 신대광 원일중 수석교사의 초청강연도 이어졌다. 신 교사는 "조선시대부터 학교와 서원이 있었던 수암동은 교육의 뿌리가 있었고, 특히 안산초는 안산의 근대교육을 이끌었던 학교"라며 "일제강점기 때는 마을주민들이 힘을 합쳐 안산국립보통학교를 중학교 입학이 가능한 6년제 학교로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한 기록도 있고, 6·25 전란으로 건물이 다 폭파됐을 때는 땅을 파고 초가지붕을 얹은 토막교실을 만들어 교육의 끈을 놓지 않고 이어간 역사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산초에서 보관하는 옛 학교 종은 그냥 시작과 끝을 알리는 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을 깨우고 우리 교육을 외치며, 대한민국 교육을 발전시켰던 종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대와 5대에 걸쳐 안산초에서 수학한 가족들을 소개하고 감사장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5대는 김보미 학생 가족 1팀, 4대는 강찬일, 안서현, 안정원 가족 총 3팀이 120주년 역사와 전통을 잇는 안산초 동문으로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안산초는 1895년 고종황제의 '소학교령'이 반포된 후, 1899년 9월 '안산군공립소학교'란 이름으로 현재 객사가 있던 곳에서 탄생했다. 한일합병 이후에는 일본인 교장이 부임하면서 1912년 4월 '안산공립보통학교'란 이름으로 재개교하게 된다. 이후 해방과 6.25 전쟁을 거치며 폭격으로 학교 건물이 무너진 환경에도 지역민들의 힘으로 토막교실을 지어 배움을 이어가는 저력을 보이기도 했다. 그 후 2011년 혁신학교로 지정된 안산초는 또 한 번 큰 걸음의 도약을 하며 어린이들의 삶을 가꾸는 온전한 교육을 마을공동체와 함께 만들어가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송보림 명예기자_treehelper@daum.com



안산시의회 3개 상임궤, 제256회 임시회 중 현장활동 실시 안건 의결 앞두고 내실 있는 심사 위해 각각 현장 방문

안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제256회 임시회 회기 중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들 3개 상임위원회는 앞서 8월 27일부터 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2일 안건 의결을 앞두고 심사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현장활동에 나섰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8월30일 단원구 대부동 일원의 '동주염전'과 '그랑꼬또 와이너리'를 잇달아 돌아봤다. 각각 공유재산 매입 예정지의 적정성 파악과 지역 특산품 관련 축제 준비 상황 점검을 위한 방문으로 위원들은 동주염전에서는 진입로의 폭 등 입지 조건에 대한 비교와 토지 매입 시 미래가치의 변동에 대해, 그랑꼬또 와이너리에서는 생산 시설을 둘러보고 축제 프로그램의 수준 및 다양성에 대해 시 관계자 등과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인만큼 제반 사항을 철저히 점검하고 지역 경제와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까지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날 도시환경위원회도 단원구 성곡동에 위치한 '안산시 하수처리장'을 방문해 시설 점검을 실시했다. 시가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터보송풍기 교체공사비 등 7건을 반영함에 따라 이날 위원들은 이 사업들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에 열을 올렸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시 측으로부터 하수처리장의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받은 뒤, 공정 시설을 둘러보며 하수 처리 과정 및 장비에 관한 이해를 높이면서 예산 심의에 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안건 의결 전 상록구 월피동 '시낭운동장'을 찾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된 시낭운동장 정비공사 사업비가 적절인지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와 농구장 바닥 정비, 육상 트랙 외부 바닥 정비를 비롯한 기타 부대공사가 낭비적 요소 없이 효율적으로 진행



사진위부터 기획행정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현장활동 모습

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급하고 예산이 통과될 경우 사용자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제256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9월11일 임시회 제3차 본회의서 안건 30건 최종 의결



안산시의회가 9월1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고 256회 임시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3차 본회의에서는 그 동안 다뤄왔던 안건을 포함해 총 30건이 최종 의결됐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안산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5건을 원안 가결하고,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수정 가결했다. 문화복지위원회도 '안산시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한데 이어 '안산시 여초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개 안건은 수정 가결했다. 도시환경위원회의 경우 '안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해 총 5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안산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보고 및 의견을 요하는 3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제시했다.

3개 상임위 공동안건인 '2019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각각 기행위는 수정 가결, 문·복·도환위는 원안가결했다. 예산안 외에 부의 안건이 없었던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원안 가결로 예결위에 넘겼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조4천901억3천569만여원 규모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안'에서 51억4천890만여원을 삭감해 2조4천849억8천678만여원으로 예산을 확정했으며,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했다.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 '채택'

텀블러 및 전자파일, 이면지 적극 활용 등 구체적 실천 방안 제시

안산시의회가 9월11일 열린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나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을 채택했다.

나정숙 의원 포함해 총 21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한 이 결의안에는 자연환경 훼손 방지와 재활용품 수거 및 재생을 위한 사회적 비용 절감, 시민의 환경보전 의식 수준 향상을 위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기본 방향과 그 실천 행동 사항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의원 개개인 이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인식해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과 ▲의회 주관 행사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참석자들에게 텀블러 등을 지참하도록 홍보할 것, ▲의회 모든 화장실의 종이 타월 사용을 중지하고 의원들

은 손수건을 휴대하며 내방객들은 핸드드라이기를 사용하도록 조치할 것, ▲각종 보고서·회의자료의 전자 파일화와 부득이한 경우 이면지를 적극 활용할 것, ▲예산 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시 관련 예산이 편성·반영되도록 노력하고 관련 아이디어 발굴과 정책 추진을 시에 요청할 것 등 5개 사항을 명시했다.

나정숙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매년 버려지는 일회용 컵은 257억개, 페트병은 27만4천톤, 비닐봉지는 1인당 420개 정도로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발생량이 가장 많은 국가에 속한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안산시의회가 솔선수범해 일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실천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안산시의회는 이날 의결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



제25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산시의회 플라스틱 및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는 나정숙 의원의 모습.

를 검토하는 한편 이를 관계 기관 등에 송부해 의회의 입장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이다.



독자 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헌혈하는 날)

장장 5개월의 전형 기간을 거쳐 2019 경기 소방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일, 표시는 안 났지만 며칠 전부터 내 마음속은 심하게 요동쳤다.

만약 원치 않는 결과가 나오면 아이에게 부담 될까 봐서... 출근 전쟁으로 정신없이 바쁜 와중에 합격자 발표가 났는지 궁금해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다.

9시 즈음 아이로부터 합격했다는 기쁜 소식 도착해 하마터면 야호하고 소리 지를 뻔했다. 오랜 시간 준비하면서 수고하고 맘 졸인걸 너무도 잘 알기에 목울대가 뜨겁게 올라와 "애썼다, 고맙다"고 칭찬해주었다. 무겁던 몸과 마음이 금방이라도 훨훨 날아갈 것 같이 가볍고 좋았다.

기쁜 날 당연한 과제가 있다. 망설이지 않고 나만의 의식행사를 치르러 중앙동 헌혈카페로 향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제일 첫 번째 손님이다. 기초 문진하고 아침식사 했냐는 질문에 사실대로 아직 전이라 하니 초코과자와 과일주스 섭취 후 헌혈해야 한다고 해서 빈 위장 속에 오랜만에 달달한 당분 충분히 공급하고 채혈을 시작했다. 주사바늘이 내 몸속을 찔러 들어와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딱딱 400ml채웠다.

가진건 오롯이 튼튼한 내 몸 하나, 건강한 몸 덕분에 환갑의 나이에 헌혈 할 수 있는 것도 큰 축복이다. 세상에서 받고 누린 만큼 작게나마 이로운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 좋다.

또 사랑하는 내 아이들에게 좋은 일이 이어지길 바라는 부족한 애비의 간절한 마음뿐. 내 마음속에 촛불 하나가 환하게 켜 졌다.

• 이명식(단원구 고잔동)



독자 투고

우리 할머니

친구랑 놀다 배가고프면
쫓르르 달려가는
음식점

맛있는 음식 차려있고
많은 음식 차려있고
매일매일 바뀌는 간식도 있는
안방 음식점

식사는 공짜

친구랑 다투고 고민 있을 때
터덜터덜 찾아가는
상담실

고민 들어주고
좋은 조언 해주고
늘 웃으며 반겨주는
안방 상담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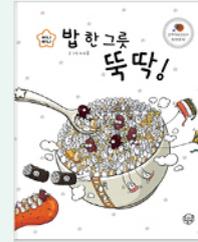
무조건 공짜

• 최민영(상록구 사동)



책 읽는 안산 / 10월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음식이 건네는 작은 위로

아동



밥 한 그릇 똑딱!

저자 이소을 / 출판사 상상박스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줄 아는 '지니'와 '비니'와 함께 밥풀 우주복을 입고 영양이 가득한 밥 한 그릇 별나라로 유쾌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다. 아이들에게 밥을 잘 먹고, 편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다. 모든 음식이 자신을 먼저 먹어달라고 아우성을 치는 등 풍부한 상상력이 담긴 독특하고 귀여운 그림이 밥 먹는 즐거움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준다.

청소년



오늘 뭐 먹지?

저자 권여선 / 출판사 한겨레출판사

책에서는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음식들이 소개된다. 대학 시절 처음 순대를 먹은 후 미각의 신세계를 경험하고 입맛을 넓혀가기 시작한 저자에게 먹는 행위는 하루를 세세히 구분 짓게 하며, 음식은 '위기와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화해와 위안을 주기'도 하는 중요한 매개체이다. 또 제철 재료를 고르고, 공들여 손질을 하고, 조리하고 먹는 과정까지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그야말로 최고의 음식을 먹었을 때의 만족감을, 쾌감에 가까운 모국어의 힘을 느낄 수 있다.

성인



위로의 레시피

저자 황경신 / 출판사 모요사

이 책은 사랑에 지치고 일상에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는 39가지의 음식과 요리에 얽힌 여러 가지 추억을 이야기한다. 어느 날 문득 나타난 한 알의 석류로부터 시작된 '레몬 물김치', 요리만화를 보다가 메모해두었던 '로스구이를 곁들인 갈릭라이스', 저자가 개발한 양념 삼겹살의 비법 등 저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다양한 음식들을 소개한다.

자료제공 / 중앙도서관



독자 투고

길에서 마주친 그대

최근 날씨가 많이 시원해졌다. 햇볕이 짙게 내리쬐던 얼마 전까지에 비하면 시원한 바람도 꽤 불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진다. 기분 좋은 바람을 맞으며 아침에 발을 옮기다보면 절로 콧노래가 나온다. 안산에는 길을 만난 곳도 꽤 있는 덕분에 평소 다니던 길을 조금만 벗어나도 여행하는 기분을 낼 수 있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보니 문득 길가에 우후죽순처럼 자라난 풀들이 보였다. 민들레도 있었고, 잡초도 있었다. 보도블록 사이에 뿌리를 내린 민들레들은 여봐란듯이 고개를 뻗쳐들고 있었다. 벌써 흙씨를 품은 녀석도 있었다.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꽃 한 송이가 낭만적일 수 있지만 그렇게 풀들로 덮인 길은 낭만적이지 않았다. 지저분하고 정신이 없어 보여 눈살이 찌푸려졌다. 얼른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켜 걸음으로 걸어가다 지나치는 어르신들을 보았다. 양 손에 목장갑을 끼고 챙이 넓은 모자를 쓴 그 어르신들은 가시는 도중마다 멈추어 주저앉으셨다가 다시 걷는 걸 반복하셨다. 호기심이 생긴 나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분들이 무엇을 하시는지 유심히 지켜봤다.

어르신들은 길가에 잡초와 민들레들을 하나하나 뽑아내고 계셨다. 그러다 하면 길가에 있는 흙을 한곳으로 모으시고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그 풀들과 주변의 쓰레기들을 담으셨다. 어르신들이 지나가시는 길은 점점 깨끗해졌고 그 속도도 놀라웠다.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어르신들의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눈으로 가만가만 쫓았다.

안산의 길거리가 깨끗해지는 장면을 직접 보고 난 후로 나는 친구들이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그때를 떠올린다. 이제 나는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걸어가서 쓰레기통에 버리자고 말을 하게 됐다. 정 그 친구가 귀찮아하면 내가 대신 쓰레기통을 찾아 버리기도 한다. 잡초와 쓰레기를 주우시며 멀어지던 어르신들의 굼은 등은 언제까지나 내게 감동으로 남을 것 같다.

여전히 나는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중에서도 저번에 어르신들을 마주쳤던 그 길은 이제 내가 자주 가는 산책로가 되었다. 깨끗해진 길을 보며 누군가는 보지 못했을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손길을 떠올린다. 이 자리를 빌려 그런 분들께 꼭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또 이 글을 읽는 여러분에게도 잔잔한 감동으로 하여금 땅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손길이 멈추어지기를 바란다.

· 강우현(상록구 본오동)



법률 상식

상표권 등록의 중요성

3월의 어느 날 일하고 있는 특허사무소로 한 쌍의 부부가 찾아왔다. 이 부부는 함께 "D*****"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다. 찾아온 이유는 카페를 운영하며 단골도 생기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 카페명칭인 "D*****"를 제3자가 먼저 상표(서비스표)출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 부부도 어느 순간 상표의 중요성을 깨닫고 카페업에 대해 상표출원 했지만 안타깝게도 제3자보다 하루 늦게 출원(등록을 요청하는 행위)했다.

상표는 자신과 타인의 상품(서비스업)을 소비자들이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출처표시이다. 상표를 등록받지 않은 채로 그냥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업에 표시하여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만약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받게 되면 등록상표가 되면서 나 이외에는 국내에서 누구도 그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할 수 있는 강력한 독점력이 생긴다. 반대로 누군가 내가 사용하는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받아 버리면 나는 그 때부터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용하는 상표는 꼭 특허청에 출원하여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등록에 관해 선사용주의가 아니라 선출원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를 먼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출원일이 늦은 이상 먼저 등록한 제3자가 상표를 독점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국 제3자가 상표를 등록받았고, 위 부부가 하루 늦게 출원한 동일한 상표는 거절되었다. 그 부부는 "D*****" 상표를 계속 사용할 무슨 방법이 없겠느냐고 읊소하였다.

"D*****"는 8자나 되는 영문자인데 사전에 없는 단어를 남편분이 순수하게 창작한 조어이기 때문에 제3자가 우연히 위의 글자를 생각해내어 상표출원을 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누군가 운영하고 있는 업소의 상표를 상표브로커가 출원, 등록받은 뒤 타인에게 상표를 판매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위와 같은 경우의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이 상표법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상표가 국내에서 유명해져서 어느 정도 알려졌었다면 선사용권이 발생하여 상표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 또는 해당 상표가 자신의 상호(사업자등록증상의 개인사업체나 법인 명칭)와 거의 동일하다면 역시 사용을 계속할 수 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 부부는 보호규정에 모두 해당하지 않았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제3자에게 돈을 주고 그 상표를 양도받거나, 아니면 아예 가게 간판을 바꾸는 것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부부에게 알릴 수밖에 없었다.

그 부부는 결국 "C*****"카페로 가게 간판을 아예 바꾸었고, 최근에 알아본 바로는 다행히도 다시 사업이 성황리에 진행되고 있었다.

위 부부의 경우는 결국 다시 일어섰지만, 인지도를 어느 정도 얻고 자리 잡은 가게의 간판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으며 때로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소규모로 경작, 제작해 파는 상품의 명칭이나 식당, 카페 같은 자영업의 명칭이 모두 상표, 서비스표라는 점을 인지하고, 특허사무소와 상담하여 10년간 보호되는 상표등록 하나 정도 받아두는 것이 은퇴 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작은 지혜가 될 것이다.

· 정문선 변리사

안산시 시정소식지는 무료 구독이 가능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구독·주소변경 신청

메일 ansannews@korea.kr
전화 031-481-2042



안산시 시정소식지에서는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 개인의 연락처, 주소 및 글과 관련된 사진을 함께 보내주세요.
※ 시민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사연이 채택 된 경우 소정의 원고료(5만원 이상)는 다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생활수기

주제 안산시민 생활담 (자유주제)

분량 ·A4용지 2/3 이상
·관련 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24개월 전후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A4용지 절반
·아기 사진 1장

안산시에 바란다

주제 안산시가 고쳤으면 하는 불편사항 또는 도입했으면 하는 정책을 제안해주세요.

분량 ·A4용지 절반
·관련 사진(안산)



생생도시 안산 방송됐다!

PLAY

MBC (9월 2일 오후 11시 5분)
풍도 720일간의 야생기록

연합뉴스TV (9월 10일)
여의도까지 25분... 신안산선 마침내

YTN 뉴스 (9월 10일)
'경기 서남부~여의도' 전철 신안산선 착공

티브로드 한빛방송 (9월 20일)
구인난-구직난 해소... 채용박람회 '복적'

2019 안산 김홍도축제



- ◇ 일시: 2019.10.11.(금)~10.13.(일) 오전 11시~오후 8시
- ◇ 장소: 화랑유원지 및 안산문화광장
- ◇ 주제: '김홍도와 함께하는 풍류여행'
- ◇ 내용: (화랑유원지) 개막식, 공연, 풍속촌, 체험프로그램, 사생대회, 플리마켓 등 (안산문화광장) 마차존, 전통놀이존, 공연존, 베품시장존, 특산품 판매존 등
- ◇ 문의: 안산시 관광과(031-481-3059)

제30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 ◇ 일시: 2019.10.18.(금)~10.21.(월)
- ◇ 개회식: 2019.10.19.(토) 오후 4시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 ◇ 장소: 와~스타디움 주경기장 등 41개 경기장
- ◇ 인원: 31개 시군 2만여명
- ◇ 종목: 24개 종목(정식 20, 시범 4)
- ◇ 주최/주관: 경기도체육회 / 안산시, 안산시체육회
- ◇ 문의: 안산시 체육진흥과(031-481-6493)

안산관광사진 전국공모전



- ◇ 접수기간: 2019.9.20.(금)~10.15.(화) 오전 11시~오후 8시
- ◇ 응모분야: 안산9경/안산시의 축제, 지역행사/안산시에서 촬영한 시 상징물(은행나무, 장미꽃, 노랑부리 백로)/그 밖에 안산을 알릴 수 있는 관광지
- ※ 2019. 1. 1. 이후 촬영한 작품에 한정
- ◇ 접수방법: 우편 및 방문접수 (상록구 화랑로 495, 스타프라자 1층 29호)
- ※ 제출서류 안내 및 기타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 홈페이지 참고(www.paskansan.com)
- ◇ 문의: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안산지부(031-483-5852)

도시농업 한마당



- ◇ 일시: 2019.10.12.(토) 오전 10시~오후 6시
- ◇ 장소: 안산호수공원 중앙광장 (상록구 사동 1509 일원)
- ◇ 주최/주관: 안산시 / 안산도시농업연대
- ◇ 내용: 도시농업 작품전시 및 공개강좌 (생활원예), 체험부스(반려식물·묘목 심기) 운영, 농산물 직거래 및 부대행사 등
- ◇ 문의: 안산시 농업기술센터(031-481-3764~5)

제4회 전국 대부해술길 걷기축제



- ◇ 일시: 2019.10.26.(토) 오전 9시
- ◇ 집결장소: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단원구 선감로 255)
- ◇ 걷기코스: 대부해술길 5·6코스 10km(약 3시간)
- ◇ 참가비: 1만원
- ◇ 접수방법: 온라인접수(www.ansantour.kr)
- ◇ 문의: 1899-1720 (사)안산시관광협의회



아프리카돼지열병이란?

돼지와 멧돼지에 감염 시 발열이나 전신의 출혈성 병변을 일으키는 치사율 높은 전염병(치사율 최대 100%) 국내 제1종 법정전염병으로 현재 치료제나 백신도 없음

국내유입 방지를 위한 주의사항



- 중국, 러시아 등 발생국 여행 시 가축 접촉금지
- 육류, 햄, 소시지 등 돼지 산물의 국내 반입금지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9060 / 4060
의심축 발견 시 반드시 가축방역기관에 즉각 신고

생생한 일자리 정보!

희망과 열정이 있는 취업마당! 안산시가 도와드립니다!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 ◇ 일시: 2019.10.2.(수) 오후 2시~4시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 2층)
- ◇ 참여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구직자
- ◇ 주최/주관: 안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 경기지역본부
- ◇ 내용: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에게 구인 정보와 면접 기회 제공, 인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구인업체에 인력 채용 기회 마련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031-481-2931/2882)

안산919취업광장

- ◇ 일시: 2019.10.21.(월) 오후 2시~4시
- ◇ 장소: 안산시청 대회의실(민원동2층)
- ◇ 주최/주관: 안산시 / 안산고용복지+센터
- ◇ 내용: 구인·구직 현장면접에 의한 채용
- ◇ 문의: 안산시 일자리센터 (031-481-2277/2919)

안산시 공식 채널



살맛나는 생생도시 안산

검색창에서

시정소식지 안산등록, e-안산등록 공식 방송채널 YouTube NAVER TV KakaoTV 검색 안산시유튜브
공식 SNS facebook KakaoStory Instagram NAVER 블로그 twitter 검색 안산시청

안산중앙도서관 유튜브 채널 오픈

YouTube 유튜브에서 안산중앙도서관을 검색하세요!